



기출 PICK

정답과 해설

윤리와 사상

정답과 해설!

1 인간의 다양한 특성,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개념 확인 문제

4쪽

1 (1) 정치적 존재 (2) 윤리적 존재

2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5~7쪽

3 ② 4 ③ 5 ④ 6 ⑤ 7 ③ 8 ⑤
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③
15 (1) 성선설 (2) 맹자 16 ④ 17 ①

3 밑줄 친 '이것'은 윤리이다.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이며 인간관계의 이치로, 인간은 윤리를 통해 시비, 선악 등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

4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은 '유희적 존재'이다. 인간은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삶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개념 보충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는 존재
사회적 존재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존재
정치적 존재	국가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존재
도구적 존재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
유희적 존재	생존이나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 외에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
문화적 존재	언어나 제도뿐 아니라 지식, 가치, 삶의 양식 등을 창조하고 계승하는 존재
종교적 존재	유한한 세계를 넘어 초월적이고 무한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
윤리적 존재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실천하고 윤리적으로 반성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

5 (가)는 윤리적 존재, (나)는 유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을 실천하는 윤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놀이를 통해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유희적 존재라 할 수 있다.

6 제시된 사례에서는 삶의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A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는 A의 모습을 통해 반성적 성찰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윤리적 존재인 인간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도구적 존재, ②는 사회적·정치적 존재, ③은 예술적 존재, ④는 유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7 그림의 강연자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주장한 '일일삼성(一日三省)'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윤리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은 유희적 존재, ②는 도구적 존재, ④는 종교적 존재, ⑤는 문화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8 제시된 글에서는 희곡 『파우스트』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악마에게 신이 건네는 충고가 서술되어 있다.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다는 신의 말을 통해, 인간은 때로 충동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는 윤리적 존재임을 추론할 수 있다.

9 제시된 글의 세 사상가는 모두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며 삶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맹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성임을 강조한다.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며 실천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세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며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는 윤리적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주어진 그대로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닌,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는 유희적 존재, ③은 종교적 존재, ⑤는 도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10 갑은 맹자, 을은 칸트이다. 맹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갑, 을은 공통적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은 도구적 존재, ②는 문화적 존재, ③은 사회적·정치적 존재, ④는 유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11 제시된 글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감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적·정치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유희적 존재, ②는 이성적 존재, ③은 도구적 존재, ⑤는 윤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12 제시된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정치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은 유희적 존재, ②는 도구적 존재, ③은 이성적 존재, ④는 윤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13 ㉠에 들어갈 용어는 성악설, ㉡은 성무선악설이다. 성악설은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제도와 같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교육 등 후천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14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로 구분할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이 본래 선한 성품을 타고나지만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 악해질 수 있으므로, 본성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의 이익을 추

2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개념 확인 문제

8쪽

18 (1) ○ (2) ○

19 (1) 자유주의 (2) 상호 보완적(인)

난이도별 필수 기출

9~11쪽

20 ⑤	21 ①	22 해설 참조	23 ①	24 ③
25 ③	26 ②	27 ④	28 ③	29 ②
30 ①	31 해설 참조	32 ⑤	33 ⑤	34 ⑤

20 ㉠에 들어갈 말은 윤리 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관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자아의 발견과 성찰, 도덕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알기 | 나. 윤리 사상은 개인의 잘못과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윤리 사상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21 ㉠에 들어갈 말은 윤리 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동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며,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자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알기 | 다. 큰 사회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보충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윤리 사상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예 동양의 유교·불교·도가 사상, 서양의 의무론, 공리주의 등
사회사상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생각 예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22 **모범 답안** 도덕적 행동 지침과 도덕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3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사상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알기 | 다. 사회사상은 사회를 항상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 사회사상은 사회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24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사회사상에는 대표적으로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세계 시민주의, 민본주의, 자본주의 등이 있다. 공화주의는 공적인 삶과 공공성을 중시하며, 자유주의는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전 인류를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간주하며, 민본주의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바로알기 | ③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구하는 존재이지만 후천적 노력을 통해 선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인간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환경에 따라 선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성선설은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②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는 맹자, 루소 등이 있다. 로크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이다. ④ 성악설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순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교화·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 후천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5 **모범 답안** (1) 성선설 (2) 맹자

16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환경 등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된다고 본다.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본성의 단서인 사단(四端)이 있으며, 선한 본성을 확충하기 위해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나, 라의 질문에 대해 고자는 부정, 맹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가. 고자는 긍정, 맹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고,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다. 고자는 긍정, 맹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고자는 인간의 도덕적 성품은 후천적인 산물이라고 보고,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 성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17 고자는 성무선악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상은 모두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욕망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는 고자와 맹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⑤는 고자는 긍정, 맹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고자는 부정, 맹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5 제시된 학습 주제 A는 사회사상이다.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의 구현 방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등이 있다. 사회사상은 이상 사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의 모습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을 하게 하며 현실 사회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바로알기 | ③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6 ㉠에 들어갈 말은 사회사상이다. 사회사상은 현재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이상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 사회가 지닌 잘못과 모순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마주하는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알기 | ② 사회사상은 사회와 독립된 개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27 밑줄 친 '이것'은 사회사상이다.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사회 제도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의 잘못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④ 사회사상은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현실 사회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8 사회사상에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 시민주의 등이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공화주의는 사적인 삶보다 공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윤 추구를 강조하고, 세계 시민주의는 전 인류를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간주한다.

바로알기 | ③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29 ㉠에 들어갈 말은 사회사상이다. 사회사상은 사회적인 논쟁의 핵심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바로알기 | 을. 사회사상은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정.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의 요구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설계한다.

30 윤리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며,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러한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 윤리 사상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의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바로알기 | ①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사상의 역할이다.

31 **모범 답안**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32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사상과 윤리적인 시민을 만들기 위한 윤리 사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정치적 존재이며, 국가는 바람직한 시민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33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보기 때문임

가장 좋은 정치의 형태는 가장 좋은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뛰어난 선을 지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할 때 이룩될 수 있다. 좋은 사람으로서의 선과 좋은 시민으로서의 선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 선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수단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상호 연관성을 알 수 있음

제시된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에 의해 정의로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훌륭한 시민에게 필요한 윤리 사상과 바람직한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회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 완성과 이상 국가 실현은 별개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제시된 글을 통해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 무관한 독립된 학문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제시된 글의 ㉠은 윤리 사상, ㉡은 사회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행동인지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 삶을 위한 도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사상은 현실 사회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상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로알기 | ⑤ 윤리 사상은 개인을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사회사상은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01 ~ 02강)

12~13쪽

35 ⑤ 36 ① 37 ④ 38 ② 39 ④ 40 ①
41 ⑤ 42 ②

35 제시된 글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증삼)가 강조한 일일삼성(一日三省)에 대한 설명이다. 증자는 매일 타인을 위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친구 관계에서 진심을 다했는지,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혔는지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②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③은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36 제시된 글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연 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털이나 자연적 공격 기관, 도망가기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을 활용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는 도구적 존재인 동시에 언어, 기술, 삶의 양식 등 문화를 개발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나. 제시된 글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종교적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르. 제시된 글에서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도덕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존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37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맹자, 을은 고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도덕성으로 인해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을 발휘하게 되고,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맹자는 모든 사람이 선한 본성을 타고나며 사단(四端)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증명하는 단서라고 주장한다. 반면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교육과 환경과 같은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 선악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통해, 고자는 후천적으로 선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②는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선이 타고난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고자는 선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③은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인위를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이다. ⑤는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고,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38 갑은 맹자, 을은 고자이다. 맹자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 가듯 모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만 잘못된 욕구나 환경으로 인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성을 확충할 수 있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자는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어 어느 쪽으로 더 주느냐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결정되듯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악한 본성의 교화를 주장하는 것은 순자이다. ③은 맹자의 입장이다. ④는 순자의 입장이다. ⑤는 고자만의 입장이다.

39 (가)의 동양 사상이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물의 흐름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악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한다. 맹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본래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자와 맹자는 모두 인간이 환경에 의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성악설을 강조한 순자의 주장이다.

40 ㉠에 들어갈 말은 윤리 사상, ㉡은 사회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삶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으로 자아의 발견과 성찰, 도덕 문제의 해결에 주된 도움을 준다. 사회사상은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말하며, 사회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바로알기 | 나. 사회사상, ㄷ은 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41 (가)는 윤리 사상, (나)는 사회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다루며,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관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 또는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루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바로알기 |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42 제시된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에는 지혜와 윤리적 결단을 가진 시민들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훌륭한 시민과 훌륭한 국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도덕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사상의 구현이 각 개인의 윤리적 측면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나. 제시된 글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 판단과 사회의 가치 판단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ㄷ. 제시된 글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도덕적인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 인의 윤리(1)

개념 확인 문제

15쪽

43 (1) × (2) ○ (3) ○

44 (1) - ㉠ (2) - ㉡ (3) - ㉢

45 (1) 사단 (2) 맹자 (3) 향산

46 (1) ㄴ (2) ㄷ

난이도별 필수 기출

16~27쪽

47 ②	48 ⑤	49 ①	50 ④	51 ⑤	52 ④
53 ④	54 해설 참조	55 ④	56 ⑤	57 ②	
58 ③	59 ①	60 ④	61 ③	62 해설 참조	
63 ①	64 ④	65 해설 참조	66 ②		
67 해설 참조	68 ②	69 ④	70 ②	71 ⑤	
72 해설 참조	73 해설 참조	74 ㉠ 향산 ㉡ 향심			
75 ③	76 ①	77 ②	78 ②	79 ③	80 ①
81 ②	82 ⑤	83 ⑤	84 해설 참조		
85 해설 참조	86 ④	87 ⑤	88 ⑤	89 ⑤	
90 ②	91 ②	92 ②	93 ③	94 ⑤	95 ②
96 ③	97 ②	98 ④	99 ⑤		

47 ① 도가에서는 인간을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보며, 자연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을 강조한다. ③ 동양에서는 일찍이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 중심 사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를 중시하였다. ④ 단군 신화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 의식과 하늘에 대한 숭배[경천사상]가 담겨 있다. ⑤ 유교에서는 인간을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을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본다.

48 (가)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인(仁)과 예(禮)와 같은 인위적인 가치가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흐린다고 보고,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나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노자는 인(仁)과 예(禮)를 인위적인 규범으로 보고, 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는 법가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은 불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맹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노자는 인간 본성에 선(善)의 실마리가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

49 제시된 글은 대표적인 동양 고전 중 하나인 『주역』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하고, 세상 만물은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교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알기 | 세 번째 특징: 『주역』의 영향을 받은 동양 윤리 사상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다.

50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에 해당한다. 유교와 불교는 모두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 만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 (나)와 관련이 없다. ③ 유교와 불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을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유교와 불교 모두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

51 ㉠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로 인해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 유교, 불교, 도가·도교 윤리는 동양 윤리 사상의 근간으로 자리 잡으며 동양의 사유 체계를 이끌었다. ㉢ 유교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도덕적 인격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고, ㉣ 불교는 수행을 바탕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자비의 윤리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 도가 사상은 대규모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다. 특히 노자는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소국 과민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52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 (다)는 도가 사상에 해당한다. 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ㄷ. 유교, 불교, 도가 사상 모두 수양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ㄱ. 유교에서는 하늘을 자연 그 자체로만 파악하지 않고, 도덕적 원리로서 파악한다. ㄷ. 도가 사상가인 장자는 만물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3 (가)는 불교 사상, (나)는 유교 사상, (다)는 도가 사상에 해당한다. 불교, 유교, 도가 사상 모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라고 보고, 만물은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조화롭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ㄴ, ㄷ의 질문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 유불도 사상 모두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다. ㄷ.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고 보므로, ㄷ의 질문에 대해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54 **모범 답안** 유교는 인(仁)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며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군자를 추구한다. 불교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며 자비를 베푸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도가는 일체의 대립과 구별을 넘어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진인, 신인, 천인, 지인)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55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무속 신앙 등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인본주의 정신,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정신, 하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 숭배하는 경천(敬天)사상의 정신 등이 담겨 있다.

바로알기 | ㄷ. 한국 윤리 사상은 현실에서 도덕적 인간과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특징으로 한다.

56 제시된 신화는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이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다는 내용은 한국 윤리 사상의 인본주의 정신, 자주적인 주체 의식, 홍익인간의 정신 등을 보여 준다. 또한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천인합일의 정신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추구하는 조화의 정신이다.

57 단군 신화에는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인본주의 정신, 서로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조화 정신, 하늘을 성스럽게 여겨 하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천사상 등이 담겨 있다.

바로알기 | ② 한국 윤리 사상에는 승자와 패자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쟁의 논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의 논리가 담겨 있다.

58 단군 신화에 나타난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하늘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염원하는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보여 준다. 또한 율불도의 내용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풍류도 역시 한국 윤리 사상이 갖는 융합과 통합의 정신을 보여 준다.

59 (가)는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중 하나인 무속 신앙, (나)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다. 한국 무속 신앙과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인간 삶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 하늘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경천(敬天)사상,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화합과 조화 정신, 도덕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과 공동체 의식 등이 담겨 있다.

바로알기 | ① 무속 신앙과 단군 신화에 담긴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은 내세 지향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이다.

60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자신보다 남의 인격 완성을 위해 먼저 현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공자는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공자는 예(禮)가 지나치게 형식화 된 것을 비판하며,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공자는 통치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를 주장하였다.

6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덕치(德治)를 주장하며, 백성을 도덕으로 지도하고 예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게 행동하는 정명(正名)을 덕치 실현의 기본 조건으로 보았고,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고자 애쓰는 사람인 군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본성을 바꿀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ㄴ. 공자는 도덕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예를 회복하여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62 **모범 답안** (1) 조금의 속임이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2) 서(愬)

63 제시된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은 인(仁), ㉡은 예(禮)이다. 공자는 인을 인간다움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자에게 있어 예는 외면적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ㄴ. 예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ㄷ. 인은 외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다.

64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가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경제적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서(愬)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해 주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④ 공자가 주장하는 인(仁)은 친소의 구별이 있는 차별적 사랑이다.

개념 보충

공자의 인(仁)과 예(禮)

인 (仁)	-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 - 기본적 덕목으로 효제(孝悌)를,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충서(忠恕)를 제시 - 친소(親疏)의 구별이 있는 사랑 ↔ 목자의 겸애(兼愛)
예 (禮)	-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 사회 규범 - 예(禮)의 지나친 형식화에 반대하고 인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예의 회복을 강조

65 **모범 답안**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66 제시된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것, 즉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예를 통한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③ 나와 남을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사랑할 것을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공자는 친소의 구별이 있는 차별적 사랑을 주장하였다. ④ 공자의 예(禮)는 본성이 아니라 외면적인 사회 규범에 해당한다. ⑤는 장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67 **모범 답안** (1) 공자

(2)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68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서(愬)의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공자는 도덕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서(愬)의 자세를 강조한다. 의견이 다를 경우 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려 하는 태도는 이러한 서(愬)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69 제시된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자세로 ㄱ.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서(愬)의 자세와 ㄴ.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이 없이 정성을 다해 임하라는 충(忠)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또한 ㄷ. 인(仁)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효제(孝悌)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공자의 인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달리 존비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다.

70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고,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강조하였다. 또한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통치하는 덕치를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② A에는 공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므로, A가 아닌 B에 들어가야 한다.

71

측은지심 수오지심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진실로 이 네 가지 마음을 계발하여 채워갈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다.
시비지심 사양지심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유교 사상가인 맹자이다. 맹자는 사단(四端)을 근거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한 행위를 저지러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고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③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④ 맹자는 교화를 통한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72 **모범 답안**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73 **모범 답안** (1)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2)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74 **모범 답안** ㉠ 항산(恒産) ㉡ 항심(恒心)

75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들의 실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돌보는 것이 도덕 정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어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도덕적 수양을 통해浩然지기(浩然之氣)의 도덕적 기개를 갖추 때 대장부(大丈夫), 대인(大人)과 같은 이상적 인간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맹자는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맹자는 양지와 양능을 바탕으로 타고난 도덕적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르며 확충할 것을 강조한다.

76 가상 대화의 고대 동양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도덕적 기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집의(集義)를 통해 타고난 도덕심인 사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ㄷ. 맹자에게 사단(四端)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마음이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ㄹ. 맹자는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77 선비와 같은 군자는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봄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준다.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본래 지니고 있는 선한 도덕심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의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불렀다. 나아가 인(仁)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며,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②는 순자의 주장에 해당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8 ① 공자는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강조한다. ③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두고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공자와 맹자는 모두 통치자가 덕을 갖추고,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④ 맹자는 경제적 안정인 항산이 없이도 도덕적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대장부 또는 대인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공자의 인(仁)이 존비친소에 입각한 사랑이라고 비판한 것은 목자이다. 공자는 인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타인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사랑이라고 보았으며, 그 실천 방법으로 효제를 제시하였다.

79 (가)는 공자, (나)는 맹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자가 자신의 지위와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정명(正名)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명론은 유교적 통치의 이념적 기초의 역할을 한다. 맹자는 인(仁)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며,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하는 민본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백성들은 경제적 안정인 항산(恒産)이 있어야 도덕적 마음인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통치자는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맹자는 백성을 저버린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고 보는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③ 맹자의 사상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다.

80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덕치(德治)를 주장하며, 군주가 먼저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수기이안인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인의(仁義)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으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인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민의에 바탕을 둔 역성혁명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가 아니라 맹자이다. ㄹ. 공자와 맹자 모두 형법에만 의지하는 통치에 반대한다.

81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군주가 먼저 인격을 닦아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인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본성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③은 맹자가 아닌 노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공자와 맹자 모두 통치자가 백성을 덕으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⑤ 맹자만이 정명에 근거한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82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군주가 백성들을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군주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의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두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주장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임금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충신의 자세로 보지 않는다. ②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먼저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한다. ③은 공자와 맹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는 맹자에게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8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순자는 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②, ③ 예(禮)를 통해 본성을 회복하거나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④ 이기적인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법치가 아니라 예(禮)로써 다스리는 예치(禮治)를 강조한다.

84 **모범 답안** 예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드는 것

85 **모범 답안** 순자.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성악설을 주장한다.

86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며, 성인(聖人)에 의해 제정된 인위적 규범인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순자는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타고난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은 노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성선설	•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입장 • 환경적 요인과 사육의 추구로 잃어버린 선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수양을 강조함 • 대표 사상가 : 맹자
성악설	•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입장 • 인위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드는 수양을 강조함 • 대표 사상가 : 순자
성무선악설	• 인간의 본성이 선 또는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 •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선악이 결정되므로 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양이 필요함 • 대표 사상가 : 고자

87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성인이 제정한 예(禮)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예치를 강조하며 타고난 신분보다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람들이 분수에 맞게 자신의 몫을 추구하도록 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순자는 국가를 다스릴 때 예를 기준으로 귀천과 상하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88 제시된 글의 사상은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재화는 한

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한비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② 순자는 성악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천리의 보존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순자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④는 묵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89

→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볼

선왕이 제정한 예(禮)를 통해 본성을 교화할 수 있음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化性起僞].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순자이다. 순자는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구분(天人分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며,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고 보고, 예(禮)를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덕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해아려 관직을 맡겨야 한다고 보면서 타고난 신분보다 능력과 업적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순자가 주장하는 예(禮)는 백성들이 직접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선왕과 성인이 제정한 것이다.

90 고대 동양 사상이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따라서 맹자는 <사례>의 A에 대해 타고난 선한 도덕적 마음을 발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면,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따라서 순자는 <사례>의 A에 대해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 결과라고 평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맹자는 타고난 성정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③은 불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도가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맹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91 고대 동양 사상이 같은 순자, 율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맹자는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성을 잘 간직하고 길러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같은 율에게 인간이 이기적이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인간 본성을 악으로, 맹자는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④는 맹자의 입장에서 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⑤는 순자가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순자는 예의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92 그림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와 순자 모두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다만,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수양과 교화의 결과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맹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고 주장한다. ㄷ. 순자는 모든 욕망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예에 따라 무절제한 욕망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함을 강조한다.

93 고대 동양 사상이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는 선천적인 도덕심인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도덕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타고난 악한 본성을 수양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도덕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성을 확충해서 도덕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맹자는 긍정,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⑤는 맹자와 순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맹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맹자와 순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94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현하고, 군주가 백성을 덕(德)으로써 다스릴 때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도덕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타고난 악한 본성을 수양을 통해 변화시키고, 예(禮)를 바탕으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릴 때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도덕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이 있는 차별적 사랑을 주장한다. ② 공자는 규범을 부정하지 않으며, 예와 같은 사회 규범을 중시한다. ③ 순자는 공자, 맹자와 달리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 본성을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순자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관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95 ① 공자는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고, 진정한 인간다움인 인(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③, ④ 맹자는 통치자가 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때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이를 예(禮)로써 교화해야 한다는 화성기위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공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이 있는 차별적 사랑인 인(仁)을 강조하였다.

96 공자, 맹자, 순자는 공통적으로 수양과 같은 노력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도덕적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공자와 맹자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고 본다. ② 세 사상이 모두 도덕 공동체 형성을 통치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④는 공자와 맹자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공자와 맹자는 타고난 덕보다 제도적 규범을 더 강조하지 않는다. ⑤는 맹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97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순자, 을은 맹자, 병은 고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성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다툼과 혼란이 발생한다고 본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태어나며, 본성에 내재한 사단을 수양을 통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자는 인간은 오직 생존과 생식의 욕구만 가지고 태어나며, 선악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순자는 덕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③은 목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순자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⑤ 고자는 인간 본성이 선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므로, 인간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98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공자, 을은 맹자, 병은 순자이다. 공자는 군주가 내면적 덕성을 갖추고,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강조한다. 맹자는 타고난 도덕적 마음을 바탕으로, 인(仁)에 기초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王道) 정치를 강조한다. 순자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 덕을 갖춘 후, 예(禮)를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예치(禮治)를 강조한다. 세 사상은 공통적으로 군주가 자신의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③은 맹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② 맹자는 내면의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둔 인에 기초한 왕도(王道) 정치를 강조한다. ⑤ 공자, 맹자, 순자는 모두 물리적 규제를 앞세우는 정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99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은 고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선악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며,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따라서 고자는 맹자와 순자에게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고자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맹자는 내면적 본성의 확충을 간과하지 않는다. ② 맹자는 인간의 욕구를 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순자는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④는 본성의 선함을 주장하지 않는 고자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개념 보충

선진 유가 사상

구분	입장	공통점
공자	- 도덕적 원리로서의 하늘 강조 - 인간은 내면적 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봄 - 정명(正名), 덕치(德治) 강조	- 욕구 절제 강조 - 도덕 공동체 지향
맹자	- 선한 성품을 부여하는 하늘 강조 - 성선설(性善說):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봄 - 왕도(王道) 정치, 민본주의적 혁명론 강조	- 군주의 수기안인의 자세 강조 -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
순자	-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 - 성악설(性惡說):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봄 - 화성기위, 예치(禮治) 강조	

4인의 윤리(2)

개념 확인 문제

28쪽

100 (1) 성즉리 (2) 이기론

101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29~35쪽

102 ③	103 해설 참조	104 ②	105 ⑤	106 ③
107 ②	108 ②	109 ④	110 ③	111 ②
112 해설 참조	113 ⑤	114 ③	115 ①	
116 해설 참조	117 ②	118 해설 참조		
119 해설 참조	120 ⑤	121 ②	122 ④	123 ⑤
124 ①	125 ④	126 ②	127 ④	128 ②
130 ①	131 ①	132 ③		129 ①

102 성리학의 사상 체계를 완성한 주희는 사물과 마음속에 모두 하늘의 이치인 천리가 반영되어 있고, 인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존천리기인욕을 주장한다. 또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효도의 이치를 궁구한 뒤에 그 이치에 따라 효도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위해서는 감정과 욕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주희는 본연지성은 순선하지만 기질지성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103 **모범 답안** 본연지성이란 성을 구성하는 이(理)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선한 본성이다. 기질지성이란 현실에서 변화하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본성으로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

104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보편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를 주장하며, 모든 만물의 존재와 현상을 이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주장한다. 이(理)는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는 무형의 이치로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며, 기(氣)는 유형의 재료로서 이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힘이다. 주희에 따르면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계이지만,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관계에 있다.

바로알기 | ② 주희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기는 실제 사물 안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

105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ㄴ, 수양을 통해 기질의 탁함을 바로잡아야 마음의 이가 온전히 실현된다고 본다. 또한 ㄷ, 모든 사람의 본연지성은 동일하지만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맑고 흐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아가 ㄹ, 정(情)은 마음의 이(理)인 성(性)이 사물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마음의 이치는 사물의 이를 탐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106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하늘의 이치가 만물에 부여되면 성(性)이 된다고 보고,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바로알기 | 주희에 따르면 ① 성이 없는 사물도 없고, 기가 없는 사물도 없으며, ② 사물마다 이는 공통성이 있지만 기는 서로 다르다. 또한 ④ 형체와 운동성을 지닌 것은 기(氣)이고, 이(理)는 만물을 낳는 무형의 원리이다. 나아가 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107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하고 주재한다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실학이다. 주희에 따르면 ③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기(氣)이며, ④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주희는 ⑤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배움으로써 도덕적 앎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08 제시된 주장을 한 중국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만물이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기론을 주장하며, 이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주희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사람마다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주희는 기질지성에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완전한 선 그 자체의 본성은 본연지성이다.

109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이치는 본래 하나이지만 현상적으로 나뉘어 달라진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주장하였다. 그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여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도덕적 직관 능력인 양지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고, 도덕 법칙에 대한 앎과 도덕적 실천이 함께 발전해 나가며 서로 일치할 때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주희는 사물의 이치와 마음의 천리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네 번째 관점: 주희는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기질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과 욕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10 밑줄 친 '나'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타고난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수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도덕성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왕수인은 인간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한다. ② 왕수인은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으며, 순선한 마음의 유지를 강조한다. ④ 왕수인은 사실에 입각한 진리 탐구의 자세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르는 '치양지(致良知)'를 강조한다. 왕수인에 따르면 ⑤ 양지는 학습과 경험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111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고 보며,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음 밖에서 이치를 찾기 말고, 내 마음을 바로잡아 타고난 양지(良知)를 발휘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③ 왕수인은 모든 사물의 이치는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궁구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왕수인은 지와 행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주장하며 선후를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왕수인은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시비와 선악을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12 모범 답안 (1) 치양지(致良知)

(2)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타고난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

113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육구연의 심학(心學)을 계승하며, 내 마음의 양지가 곧 천리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다. 그는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고 보며, 사물의 이치나 이론적 지식을 쌓기보다 사욕을 제거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격물(格物)을 통해 내 마음의 양지를 그대로 발현[치양지(致良知)]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⑤는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114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왕수인이고, ‘어느 사상가’는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천리라고 보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며, 모든 이치와 사물은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을 곧 천리(天理)라고 보는 주희의 성즉리(性即理)에 대해 마음과 이치를 둘로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왕수인이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왕수인은 마음 안에서 인의의 덕을 찾는다. ② 주희는 마음의 본체가 성이라고 보므로, 주희에게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④ 주희는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고 보므로, 주희에게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다. ⑤ 주희는 마음 밖의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115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우리 마음에 이미 양지가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며, 양지의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왕수인은 ② 지행(知行)에는 선후(先後)가 없다고 보며, 지와 행이 하나라고 보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고, ③ 양지가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④ 모든 사물과 이치는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마음 밖에는 사물도 이치도 없다는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를 제시한다. 나아가 그는 ⑤ 마음 밖의 이치의 존재를 부정한다.

116 모범 답안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무엇인가요?

117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주희와 양명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주희는 ‘격물(格物)’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양명은 ‘격물(格物)’을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바로알기 | 나. 지와 행을 선후를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보는 것은 양명의 입장이다. 주희는 지와 행의 선후를 논하자면 지가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자면 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르. 지와 행이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해 나아간다는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제시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지와 행의 관계가 두 발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번갈아 내딛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반면, 양명은 지와 행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8 모범 답안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왕수인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내 마음의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119 모범 답안 첫째, 성리학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보편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한다. 반면, 양명학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한다. 둘째, 지(知)와 행(行)의 관계에 있어 주희는 지가 먼저이고 행이 나중이라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한다. 반면, 양명학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한다.

개념 보충

성리학과 양명학 비교

성리학	양명학
성즉리(性即理): 성이 곧 천리 → 모든 만물은 각자의 이치를 가지고 있음	심즉리(心即理): 마음이 곧 이치 → 모든 만물의 이치는 내 마음 속에 존재함
격물치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	격물치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
선지후행(先知後行): 선후를 논하면 지가 먼저이고 행이 나중임	지행합일(知行合一):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임 → 지와 행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
• 맹자의 성선설 계승 • 존천리거인욕의 수양 강조 •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봄 • 도덕적 앎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실천을 강조	

120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格物)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격물(格物)을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격물(格物)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주희는 부정, 왕수인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주희와 왕수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이 모두 양지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④는 주희와 왕수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는 경중(輕重)을 따지자면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고 본다.

121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가. 주희는 앎과 실천에 선후가 있다고 보며,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였다. 나. 주희는 인간의 선한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천리가 곧 성(性)이라고 보며, 천리(天理)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 근거를 천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고 보며, 마음이 곧 천리이고 성(性)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왕수인에게 있어서도 도덕적 행위 근거는 마음, 즉 천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나. 왕수인은 모든 사물과 이치가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를 섬기는 이치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사물도 이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를 주장하지 않는다.

122 중국 사상이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모든 만물의 이치는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함으로써만 드러난다고 본다. 즉, 만물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만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본다. 반면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상관없이 만물의 이치인 성이 만물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⑤는 왕수인과 주희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왕수인과 주희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는 앎의

공부가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③은 왕수인은 부정,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앎과 실천의 병진(並進)이 아니라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는 합일(合一)을 주장한다.

123 동양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모든 만물에 부여된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함으로써 마음의 이(理)를 밝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왕수인은 사물의 이치는 마음 밖에 있지 않다고 보며, 마음의 양지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치양지(致良知)를 강조한다. 또한 주희는 앎과 행함에 있어 선후가 있다고 보는 것과 달리, 왕수인은 앎과 행함에는 선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래 하나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⑤는 주희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24 중국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덕 본성을 잘 보존하고,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여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구하는 것과 그 실천이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또한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주희는 인의예지의 사덕이 성의 본체이며, 이러한 본연의 성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125 동양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 본성 안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내재해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또한 '이치는 본래 하나이지만 현상적으로 나뉘어 다르다'라는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주장하며, 각 사물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치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도 이치도 없다는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를 주장하며, 모든 사물과 이치는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바로알기 | ④ 왕수인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양지가 갖추어져 있지만, 양지를 바르게 실현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6 중국 사상이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통솔하고 주재한다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는 것은 주희이다. 따라서 ㉡은 왕수인은 '아니요', 주희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바로알기 | ㉠은 왕수인은 '예', 주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은 왕수인은 '아니요', 주희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지와 행은 본래 하나라고 주장한다. ㉢은 왕수인과 주희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두 사상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하는 수양을 통해 성인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은 왕수인은 '아니요', 주희는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이론적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127 동양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며 지극한 앎에 이르는 학습을 강조한 반면, 왕수인은 모든 이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치의 학습 없이 내 마음의 양지를 있는 그대로 따르고 실현함으로써 도덕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주희는 사물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는 이론적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주희는 번뇌의 제거가 아니라, 인욕(人欲)의 제거를 주장한다. ③ 왕수인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본다. 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128 (가)의 중국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도덕적 앎을 쌓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이를 것을 강조한다. 반면,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앎과 실천에는 선후가 있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도덕적 앎을 쌓아야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갑은 '예', 을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주희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주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는 주희와 왕수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양자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합일을 주장하지만, 앎과 실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고 본다.

129 을은 심즉리를 주장한 왕수인이다. 퍼즐 속 가로 열쇠 (A) 낱말은 양심(良心), (B) 낱말은 치지(致知)이다. 따라서 세로 열쇠 (A)에 들어갈 낱말은 '양지(良知)'이다. 왕수인에게 양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서,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바로알기 | ②는 성리학의 성즉리(性即理)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성리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이다. ④는 성리학의 경(敬)의 수양과 격물(格物)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설명이다.

130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희는 마음에 부여된 이치를 성(性)이라고 보며, 성이 곧 천리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한다. 마음(心)과 마음에 부여된 천리로서의 성(性)을 구분하는 것이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천리이자 양지라고 보고, 마음에 모든 사물과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는 주희만이 긍정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왕수인만이 긍정할 질문이므로 C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는 주희와 왕수인 모두 긍정할 질문이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왕수인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본다.

131 중국 사상이 갑은 주희이다. 주희는 격물(格物)을 각각의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로알기 | ②, ③, ④는 왕수인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성리학의 경(敬)의 수양법에 대한 설명이다.

132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양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한 천리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의 수양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은 주희와 왕수인 모두가 부정할 진술이다. ㄴ,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한국 유교와 도덕적 심성

개념 확인 문제

37쪽

- 133 (1) ㄱ (2) ㄴ 134 (1) - ㉠ (2) - ㉡ 135 (1) 칠정
(2) 이이 (3) 이통기국 136 (1) × (2) × (3) ○

난이도별 필수 기출

38~45쪽

- | | | | |
|-----------|-----------|-------|-------|
| 137 해설 참조 | 138 해설 참조 | 139 ② | 140 ⑤ |
| 141 ④ | 142 ② | 143 ① | 144 ② |
| 145 해설 참조 | | | |
| 146 ③ | 147 ③ | 148 ② | 149 ① |
| 150 ⑤ | 151 ① | | |
| 152 ④ | 153 ① | 154 ① | 155 ⑤ |
| 156 ② | | | |
| 157 해설 참조 | 158 ④ | 159 ② | 160 ④ |
| 161 ⑤ | | | |
| 162 ① | 163 ② | 164 ⑤ | 165 ④ |
| 166 ③ | 167 ⑤ | | |
| 168 ② | 169 ② | 170 ③ | 171 ③ |

137 **모범 답안** 거경(居敬): 욕망을 절제하고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 궁리(窮理):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

138 **모범 답안**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정제엄숙(整齊嚴肅), 항상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상성성(常惺惺)이 있다.

139 제시된 글의 한국 윤리 사상가는 이황이다. 발(發)하는 것은 오직 기(氣)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상가’는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의 발함도 긍정하기 때문에 이이의 입장에 대해 이(理)의 능동성과 생성 작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는 두 사상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성리학에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情)에 해당한다. 다만,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이는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여기에 탄 것 한 가지뿐이라고 본다.

140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 이원론적 관점을 취한다. 그는 이와 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이이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황은 이와 기의 운동성을 모두 긍정한다. 세 번째 관점: 이이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황은 도덕적 감정인 사단과 일반적 감정인 칠정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141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이이에 해당한다. 이이는 이가 만물의 근본 원리로서 무형무위(無形無爲)하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로서 유형유위(有形有爲)하다고 본다. 즉, 운동하고 발하는 것은 기(氣)뿐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이황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이이는 이와 기는 개념적·논리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③은 이황의 입장에 해당한다. 이이는 이(理)의 능동적 작용을 부정한다. ⑤ 이이는 이에는 형태가 없고, 기에는 형태가 있다고 본다.

142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이이에 해당한다. 이이는 인간의 일반 감정인 칠정에는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이 있고, 이 감정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사단(四端)이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칠정에 있는 기쁨의 감정 중에도 순선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이이는 기(氣)의 운동성만을 인정한다. ③ 이이는 이(理)는 순선하지만, 기(氣)는 국한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⑤ 이이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바라본다.

143 제시된 글의 한국 사상가는 이이에 해당한다. 이이는 선의 원리인 ‘이’는 형태가 없어 두루 통하고,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되고 불완전하다고 본다. 또한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라는 한 가지 같만 옳다고 보며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를 주장한다.

144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이이에 해당한다.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한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보면서, 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기가 움직이면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보며, 사단은 칠정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ㄷ.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질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칠정은 가선가악(可善可惡)한 것이며, 그 중 순선한 부분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한다고 보았다.

145 **모범 답안** (1)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선의 원리이기 때문에 발하는 것은 기(氣)뿐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2) 이이와 이황은 공통적으로 사덕을 성(性), 사단과 칠정을 정(情)으로 보며,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경(敬)의 수양을 강조하며, 천리로서의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을 강조한다.

146 한국 사상이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ㄷ. 이황은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 보며,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이와 기에 각각 연결시킨다. 반면, 이이는 정(情)은 칠정뿐이며, 사단은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 것으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ㄷ. 이황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이가 발하여 생겨난다고 보는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ㄷ, ㄷ의 질문에 대해 이황은 긍정, 이이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 ㄴ은 이황과 이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47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은 이의 운동성과 발현을 인정하지만, 이이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의 운동성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황의 입장에서는 이이가 이의 발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이이의 입장에서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②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을 악한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④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감정이라고 본다. ⑤ 이황은 이의 작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황이 제기할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이는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것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148 한국 유교 사상이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의 감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이는 사단을 포함하는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이라고 보며, 사단을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바로알기 | ①은 이이의 이통기국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이황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이이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고, 발하는 것은 기(氣)라고 주장한다. ⑤ 이황과 이이 모두 사단과 칠정을 감정이라고 본다.

149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ㄱ.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구분한다. 그는 기와 칠정의 관계가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으며, 발현하는 것에는 각각 혈액이 있고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主)로 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이와 기로 귀속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로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으며, 칠정이 사단을 겸한다고 본다. ㄴ.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감정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은 이이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므로 C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ㄹ은 이황의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0 이황과 이이는 모두 기(氣)의 발함과 운동성을 인정한다. 두 사상가의 입장이 나뉘는 부분은 이(理)의 운동성에 대한 것이다. 이황은 이와 기의 운동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이는 움직이는 것은 기뿐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이황은 이귀기천(理貴氣賤)을 주장하며,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고 본다. ②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情)으로 본다. ③ 이황과 이이 모두 경(敬)과 성(誠)의 수양을 강조하며, 이이는 이황에 비해 성의 실천을 더 강조한다. ④ 이이는 이황보다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 불상리(不相離)를 중시한다.

개념 보충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

이황	이이
• 상대적으로 '이기불상잡'을 강조	• 상대적으로 '이기불상리'를 강조
• 이귀기천: 이를 기보다 우위에 둠	• 이기지묘: 이와 기는 묘합의 관계
이기호발설: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음	기발이이승설: 기가 발할 때 이가 그것을 타는 하나의 길만 존재함
•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원천이 다름	•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임
• 사단은 '이'의 발현이고, 칠정은 '기'의 발현임	•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임
• 존천리거인목의 수양을 강조함	
• 경(敬)과 성(誠)의 수양을 강조함	

151 (가)의 한국 사상이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ㄱ. 이황과 이이는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며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황은 칠정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며 둘을 분리시켜서 보는 것과 달리, 이이는 칠정 중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본다. ㄴ. 이황은 이기불상잡에 초점을 맞추며 이와 기가 섞일 수 없다고 보며, 이의 운동성을 주장한다. 반면, 이이는 이기불상리에 초점을 맞추며 기의 운동성만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이황은 '사단'이 순전한 '이(理)'가 발하여 나타난 정이라고 본다. ㄹ. 이이는 경(敬)의 수양과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의 수양을 모두 강조한다.

152 한국 사상이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과 이이에 따르면 칠정은 기가 발하여 드러난 것으로, 선악의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감정이다. 따라서 ④에 대해 두 사상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⑤는 이황과 이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이이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이황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53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을 모두 정(情)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②는 이황은 부정, 이이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의 발현,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 본다. ③은 이황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이귀기천을 주장한다. ④, ⑤는 이황과 이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은 모두 칠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 연원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반면,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

154 한국 사상이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이 칠정 중 절도에 맞게 발현된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반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각 다르다고 보며,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을 구분한다.

바로알기 | ②는 이황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은 이이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이황은 사단은 순전한 정이고 칠정은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정이라고 본다.

155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으로 본다. 다만, 이황이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기의 능동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이는 기의 능동성만을 인정한다. 또한 이이는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에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6 정약용은 사단의 '단(端)'을 시초, 시작이라고 해석하여 단시설(端始說)을 주장한다. 사단을 시작점으로 덕 있는 행동을 실천해 갈 때 인의예지의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성리학에서는 사단의 '단(端)'을 단서, 실마리로 해석하여 단서설(端緒說)을 주장한다. 사단을 통해 사덕이 본성으로서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사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본연지성]으로 규정하는 성리학의 관점을 비판하며, 덕은 후천적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ㄹ. 정약용은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기호와 생리적 기호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선을 따라 실천할 때 '사덕'이 생긴다고 본다.

157 모범 답안 ㉠ 영지(靈知) ㉡ 형구(形軀)

158 ① 정약용은 인간 본성은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라고 보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다. ③, ⑤ 이때 기호에는 인간만이 지니는 도덕적 기호인 영지의 기호와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인 형구의 기호가 있다고 보고, 성리학의 엄격한 금욕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욕구가 도덕적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욕구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②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자주지권이 있기 때문에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④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실학을 체계화하였다.

159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일종의 경향성인 '마음의 기호'라고 보고, 인간의 본성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만 주어져 있을 뿐이며, '사덕'이 선천적 본성으로 내재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의예지의 덕은 실천적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우주 자연의 원리인 천리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라고 보지 않으며,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이법적 실체로서의 이(理)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ㄷ. 정약용은 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자유 의지의 결단을 강조한다.

160 (가)를 주장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인 영지의 기호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나)의 A에 대해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따른 행동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동물과 공유하는 기호인 형구의 기호는 선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다고 보았다.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례의 경우 형구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은 도가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61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로서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선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해 갈 때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적·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형구의 기호를 가졌다고 보고, 이러한 욕구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을 취하며, 욕구를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하였다.

바로알기 | ⑤ 정약용은 인간만이 지니는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본다.

16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정약용은 사단이 사덕을 형성할 수 있는 시초, 시작점이라고 본다. ③ 정약용은 인간 본성이 환경과 무관하게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다고 본다. ④ 정약용은 성(性)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기호로서 주어진 성을 바탕으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정약용은 선천적인 도덕적 지향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본다.

163 한국 사상이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사람은 동물과 달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도덕적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단을 시초로 덕을 쌓아갈 선행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간은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 의지를 지녔다고 본다. 이이와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이이는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이기지묘의 관계라고 보았다.

164 한국 사상이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고, '이'는 기가 발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두고,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생리적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덕적 기호인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정약용은 자주지권이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165 중국 사상이 갑은 맹자, 한국 사상이 을은 이황이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의 정(情)이 드러남을 통해 인간 본성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단을 사덕의 단서, 실마리로 본 것이다. 또한, 타고난 선한 본성으로서의 사덕을 확충해 가는 노력을 통해 도덕적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맹자와 이황은 사덕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166 한국 사상이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성리학자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천리가 곧 인간 본성이라고 보는 성즉리(性即理)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천리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을 기호(嗜好)라고 보며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다. 그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사단을 시작으로 도덕적 실천을 쌓아감으로써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이와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수양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강조하며,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호라고 보았다.

167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를 강조한다. 정약용은 욕구를 도덕적 삶의 추동력으로 보며, 성리학의 금욕주의적 수양론을 비판한다. 또한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주지권을 통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이황의 입장에 비해 정약용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욕구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정도'와 'Y: 사람의 주체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고, 'Z: 타고난 성을 하늘의 이치(天理)로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168 (가)의 중국 사상이 갑은 주희, 한국 사상이 을은 정약용이다. 주희는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사단의 정이 드러남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며, 사단이 사덕의 단서라는 단서설을 주장한다. 반면, 정약용은 선천적으로 인성에 주어진 사단을 확충해감으로써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며, 사단이 사덕을 형성하는 시초라는 단서설을 주장한다. 주희와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며,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② 주희와 달리 정약용은 인간 본성에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지 않다고 본다.

169 한국 사상이 갑은 정약용, 중국 사상이 을은 순자이다. 정약용과 순자는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인의예지의 덕이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덕은 후천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고, 순자는 인간에게는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서 수양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질문: 정약용은 긍정,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간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해서 보는 천인분(天人分)을 주장한다. 세 번째 질문: 정약용은 긍정,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본다.

170 한국 사상이 감은 이황, 율은 이이에 해당한다. 이황과 이이는 모두 기가 발하면 이가 그것을 탄다는 기발이승(氣發理乘)을 인정한다. 또한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관계로 사물 속에서 항상 함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이황은 부정, 이이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은 이황은 부정, 이이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본다.

171 한국 사상이 병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사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규정하는 성리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사덕은 도덕적 실천을 꾸준히 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사단을 시작점으로 사덕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단시설의 입장에 해당한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사단의 드러남이 인간 본성에 사덕이 내재해 있다는 단서, 즉 실마리가 된다고 보는 단서설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ㄴ은 이황, 이이가 정약용에게 제기할 비판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성리학과 정약용의 사상 비교

성리학	정약용
성즉리설: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천리라고 보는 입장	성기호설: 인간의 본성을 일종의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라고 보는 입장
단서설: 사단은 본성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게 하는 단서라고 보는 입장	단시설: 사단은 사덕을 실천하는 뿌리, 시초라고 보는 입장
상대적으로 욕구의 절제를 강조함	상대적으로 욕구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함 → 욕구를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함

-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함
- 인간 본연의 도덕적 가능성을 제시함
-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봄

불교와 자비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47쪽

172 연기설

173 (1) - ㉠ (2) - ㉡ (3) - ㉢ (4) - ㉣

174 (1) 유식 (2) 부파

175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48~51쪽

176 ④	177 ⑤	178 ④	179 ③	180 ①
181 해설 참조	182 ④	183 해설 참조	184 ②	
185 ②	186 ①	187 ③	188 ③	189 ④
191 ③	192 ③	193 ⑤	194 ④	195 ②

176 제시된 사상은 초기 불교 사상에 해당한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설'을 제시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中道)에 따른 수양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도 독립적일 수 없으며, 고정 불변의 자아 혹은 정체성이란 없다고 본다.

177 석가모니는 연기의 법을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할 때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비의 윤리를 실천하게 된다고 본다. 나아가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불교에 따르면 청정한 불성은 깨달음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다.

178 제시된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자아는 없다고 본다. 또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상호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생겨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불교에서는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輪廻)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179 (가) 사상은 불교이다. (나)의 퍼즐 가로 낱말 (A)는 '무위(無爲)'이고, (B)는 '문명(文明)'이다. 따라서 세로 열쇠 (A) 낱말은 '무명(無明)'이다. 무명이란 모든 만물의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緣起)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무지의 상태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열반(涅槃)의 경지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연기설(緣起說)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석가모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수양법으로 중도의 수행법인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⑤는 보살(菩薩)에 대한 설명이다.

180 제시된 글은 불교의 삼학(三學)에 대한 설명이다. 석가모니는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을 제시하였다. '계'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정’은 선정 수행을 실천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혜’는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지혜[반야(般若)]를 얻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② ㉠은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팔정도 중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이 이에 해당한다. ③ ㉡은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팔정도 중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정진(正精進)이 이에 해당한다. ④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지혜를 얻는 것이다. ⑤ ㉠~㉢은 모두 미혹(迷惑)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 수행 방법이다.

181 **모범 답안** 고성제(苦聖諦): 인간 삶의 갖가지 고통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생로병사가 있음

집성제(集聖諦): 고통이 생기는 원인으로, 무명, 애욕, 삼독이 있음

멸성제(滅聖諦):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이 사라진 상태[해탈, 열반]

도성제(道聖諦):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와 삼학이 있음

182 석가모니의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내용이다. 고제(苦諦)란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판단으로, 대표적으로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다. 집제(集諦)란 고통이 생기는 원인으로 집착과 무지, 애욕이 이에 해당한다. 멸제(滅諦)란 고통이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도제(道諦)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의미하며, 그 방법으로 중도의 수행법인 팔정도와 삼학이 있다.

바로알기 | ㄴ은 집제에 대한 설명이다. 도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와 삼학이 있다.

183 **모범 답안** 소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여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고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대승 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184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고, 수행자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하였다. 부파 불교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 즉 이상적 인간상으로 아라한을 제시하였으며, 대승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기 때문에 ‘작은 수레’라는 의미로 소승 불교라고도 불렸다.

바로알기 | ㄴ, ㄷ은 대승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보충

부파 불교(소승 불교)	대승 불교
• 석가모니 입멸 후 계율과 경전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교파로 분열됨 →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함 •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함 • 이상적 인간상: 아라한	• 개인의 해탈에 몰두하고, 대중 구제와 멀어진 부파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부름 •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 측면을 강조하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함 • 이상적 인간상: 보살

185 제시된 사상은 대승 불교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가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져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고정 불변하는 독자적 성질로서의 자성(自性)이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기를 깨닫지 못한 무명(無明)의 상태, 번뇌의 상태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한 올바른 수행 방법으로 계·정·혜의 삼학과 팔정도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② 대승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 해탈을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

186 제시된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생멸·변화한다는 제행무상의 실상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위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실상을 깨달아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ㄷ.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명(無明)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ㄴ. 불성(佛性)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187 제시된 주장을 한 불교 사상가는 용수이다.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을 확립한 용수는 중관 사상을 구체화하였다. 그는 고정 불변하는 유(有)에 대한 집착과 아무것도 없다는 무(無)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불교에서는 ① 참된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② 고정 불변하는 자아란 없다고 본다. 또한 ④ 멸성제(滅聖諦)에 도달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며, ⑤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188 (가)는 중관 사상, (나)는 유식 사상이다. 대승 불교의 교리는 공(空)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확립한 중관(中觀) 사상과 이를 수행론적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唯識) 사상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유식 사상은 모든 존재가 실체 없는 공(空)이라고 주장하는 중관 사상과 달리, 구체적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만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89 (가)는 중관 사상, (나)는 유식 사상이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모두 대승 불교에 속하며, 대승 불교는 기본적으로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한다. 따라서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다만, 유식 사상은 중관 사상을 극단적 허무론이라고 비판하며 지각하고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을 긍정하였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유식 사상은 (나)이다. ㄴ.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모두 태어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즉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성제의 진리를 깨우칠 것을 강조한다.

190

감각·지각·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을 긍정함

(가) 현상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만
유식
사상
들어 낸 마음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나) 모든 것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고, 임시로 붙여진 이름에 불
중관
사상
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무지
로부터 벗어나 집착에서 생겨나는 온갖 고통과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고 봄

(가)는 유식 사상, (나)는 중관 사상이다. 두 사상은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유식 사상은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지만, 마음의 작용인 식(識)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수행에 관심을 두었으며, 마음 수양 방법으로 요가를 강조하였다. 반면 중관 사상은 모든 존재의 실체가 공(空)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유식 사상은 이를 극단적 허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바로알기 | ④ 유가사는 요가 수행자라는 뜻으로, 유식 사상의 수행자를 말한다.

191 제시된 불교 종파는 선종이다. 선종에서는 불교의 진리는 언어와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 데[불립문자(不立文字)]에 참뜻이 있으며, 석가 모니의 교설 이외에 따로 전하는 것[교외별전(敎外別傳)]이 있으니 복잡한 교리를 떠나 마음의 실상을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직지인심(直指人心)] 자신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견성성불(見性成佛)] 본다.

바로알기 | ③은 도가의 이상적 경지에 해당한다.

192 제시된 주장을 한 중국 불교 사상가는 혜능이다. 혜능은 불교의 진리인 법(法)은 복잡한 교리와 경전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선(禪) 수행을 통해 마음속 불성을 직관함으로써 자신이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③ 혜능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보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93 (가)의 불교 사상은 선종이다. 선종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참된 성품[불성]에 대한 직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선(禪) 수행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② 선종에서는 문자와 경전 공부에 의존해서는 불교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본다. ③ 선종에서는 문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④ 불교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194 제시된 불교 사상은 선종이다. 선종은 직관적 체험인 선(禪)의 수행을 통해 자신이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보며, 자신의 마음속 불성을 직관하면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즉각적으로 단박에 깨달음[돈오(頓悟)]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세 번째 입장: 교종의 입장에 해당한다. 선종은 참선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강조한다.

195 갑은 교종, 을은 선종의 입장을 취한다. 교종은 경전의 해석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계율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선종은 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교리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을 강조하는 정도', 'Y: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으로 돈오를 강조하는 정도', 'Z: 화두를 통해 마음을 실상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 모두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7 한국 불교와 화합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52쪽

196 (1) 일심 (2) 화쟁 사상

197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53~55쪽

198 ⑤ 199 ④ 200 ④ 201 ① 202 ④ 203 ②
204 ② 205 ⑤ 206 ① 207 ② 208 ③ 209 ②
210 ② 211 ④

198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불교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다양한 이론과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이론과 종파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하고자 하는 화쟁(和諍) 사상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원효는 ① 세속을 떠나 진리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중생 구제를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또한 ② 불교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 신분의 조건이 없다고 보았으며, ③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④ 원융회통을 위해 각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로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9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체의 대립을 초월하면서 모든 존재의 원천이자 근간이 되는 일심(一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심에 근거하여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일심으로 돌아가면 만물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원효에 따르면 일심으로 돌아갈 때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200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불교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마음 밖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心外無法]고 보았으며,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원융회통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불교의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며, 무애행(無碍行)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원효는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왕실 중심의 당시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불교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불경을 읽지 못해도 염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 수행에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없다는 무애행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였던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불교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에 집착하기보다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불교에서 무명(無明)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ㄹ. 원효는 각 종파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202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여러 종파와 사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원융회통의 논리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종파마다 다른 이론도 결국은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다른 시각에서 본 것임을 알고, 여럿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던 불교의 이론과 종파를 조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왕실 중심의 불교가 주를 이루었던 분위기 속에서 불교 수행에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없다는 무애행의 실천을 강조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 ㄷ. 원효는 교종보다 선종이 우월하다고 보지 않았다.

203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 종파, 이론은 다르면서도 서로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므로 서로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ㄴ. 원효는 일심을 바탕으로 교리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논쟁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리 해석의 확실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ㄷ. 원효는 일심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현실과 변화하지 않는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같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은 원효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에 해당하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ㄴ. 원효는 각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에 해당하므로 A에 들어가야 한다.

204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전 공부와 참선을 중시하는 교종을 중심으로 하여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혜능이 주장한 돈오돈수에 대한 설명이다. 의천은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수양 방법과 참선 수행과 돈오를 강조하는 선종의 수양 방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은 소승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의천은 외적인 교와 내적인 선을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였다.

205 의천은 교종을 주(主)로 하고 선종을 종(從)으로 하는 입장에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교종의 수양 방법과 선종의 수양 방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내외겸전(内外兼全)과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함께 닦아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은 원효가 주장한 것이다. ㄴ은 지눌이 주장한 수행 방법이다.

206 의천은 당시의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교종을 중심으로 하여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ㄷ.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 방법으로, 지눌이 강조한 수양법이다. ㄴ. 의천은 조계종이 아니라 천태종을 창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선일치를 추구하였다. 불교계의 평화 운동을 주도한 것은 지눌이다.

207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불교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내외겸전과 교관겸수를 강조하였다. 내외겸전은 교종의 수양법과 선종의 수양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관겸수는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의천은 속세로부터 떠나 참선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③은 지눌의 수행법에 해당한다. ④ 의천은 교리 공부와 함께 참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의천은 다양한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20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에서 제시하는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종파와 관계없이 모두가 성불의 길로 회통한다는 통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의천과 달리,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 가는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수행법과 정과 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③ 지눌은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면 곧장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깨우친 후에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를 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9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의 합일을 추구하였다. 돈오점수란 내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단박에 깨달은 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를 제거해 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혜쌍수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혼란함이 없는 상태인 정(定)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인 혜(慧)를 함께 닦아 나가는 것이다.

바로알기 | 지눌은 ㄴ. 경전과 교리 공부만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ㄴ. 깨닫는 즉시 그릇된 습기가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인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0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선종과 교종이 주장하는 궁극의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라고 보았다. 또한, 정(定)은 마음의 본체를, 혜(慧)는 마음의 인식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공(空)은 독자적 본성을 가지는 실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불변하는 존재의 실체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ㄴ. 지눌은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후에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습기를 제거해 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211 한국 불교 사상가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지눌은 참다운 '나'를 보는 돈오 후에도 오랜 시간 누적된 잘못된 인식과 습기를 차차 소멸시켜 가는 점수를 실천해야 온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경전 읽기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제시한다.

바로알기 | ㄱ. 지눌은 깨침과 닦음이 일시에 완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 점진적인 닦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ㄷ. 화두를 바탕으로 깨우쳐 가는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제시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개념 보충

의천과 지눌의 사상

의천	•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내외겸전(内外兼全): 내적 공부와 외적 공부를 같이 온전히 해야 함 • 교관겸수(敎觀兼修): 경전 읽기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 함
지눌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돈오점수(頓悟漸修):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 가는 수행법 • 정혜쌍수(定慧雙修):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으로,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임

도가와 무위자연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57쪽

212 (1) ㄷ (2) ㄴ (3) ㄱ

213 소국 과민

214 (1) ○ (2) ×

215 (1) 현학 (2) 황로학파

난이도별 필수 기출

58~63쪽

216 ⑤ 217 ④ 218 ① 219 ③ 220 ⑤ 221 ④
222 ② 223 ⑤ 224 ⑤ 225 ③ 226 ④ 227 ②
228 ① 229 ① 230 ② 231 ③ 232 ① 233 ⑤
234 ⑤ 235 ④ 236 ① 237 ④ 238 ① 239 ①
240 ③ 241 ② 242 ④ 243 ④

216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중국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무위의 덕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에 내재한 인위적인 것들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허정(虛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노자는 ① 인의(仁義)의 덕은 도(道)가 사라지고 사회가 혼란하여 생겨난 인위적 규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② 예법(禮法)과 같은 인위적 질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③ 도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으며, ④ 본성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21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물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꾸밈이 없는 순수하고 소박한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최상의 선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는 물의 모습과 같다(상선약수(上善若水))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노자는 ① 부국강병의 추구를 반대하였다. 그는 무위의 다스림(무위지치(無爲之治))이 실현된 소국 과민(小國寡民)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또한 ② 도덕적 본성이 아닌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주장하였다. ③은 맹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도교의 양생술, 신선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21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인의(仁義)의 도덕과 효의 윤리가 사회와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인위적 규범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자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 제도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도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노자는 ② 사회의 혼란으로 인위적 사회 제도가 생겨났다고 보고, ③ 인위적인 도덕적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한 ④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의(仁義)가 생겨났다고 본다. ⑤ 노자는 천지 만물의 절대적 질서 의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천지 만물이 상대적 가치만 지닐 뿐이며, 절대적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19 노자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천지 만물이 상대적 가치만을 가질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상적 인간상으로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성인(聖人)을 제시하였는데, 성인의 정치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하는 정치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노자는 ㄱ. 문명의 이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

명의 이기는 그릇된 인식과 욕심을 불러일으켜 도(道)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ㄴ. 노자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지 않았다.

220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인위적인 도덕과 윤리에 있다고 보고,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무위자연(無爲自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또한 무위자연의 삶의 모습을 물에 비유하며, 최상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이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닌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상적 사회의 모습으로는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고, 무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소국 과민의 사회를 제시한다.

바로알기 | ㄱ. 노자는 문명의 발달을 비판하였다. 문명의 발달은 그릇된 지식을 부추기고, 경쟁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 기준으로 교화하고 다스리는 정치에 반대하며 무위의 다스림을 이상적 정치로 제시하였다.

개념 보충

노자의 사상

이상적인 삶	• 무위자연(無爲自然): 인위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봄 • 상선약수(上善若水): 흐르는 물처럼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봄
이상적인 사회	• 무위의 다스림(무위지치(無爲之治))이 실현되는 사회 → 백성들이 무지(無知)와 무욕(無慾)의 삶을 살게 해야 함 • 소국 과민(小國寡民):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

22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적 규범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자연의 덕을 갖추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본다. 또한 바람직한 삶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무지하게 사는 것으로, 좋은 통치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들을 무지(無知)와 무욕(無慾)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허정, 허심, 순박의 정치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ㄷ. 노자는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명의 발달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소박한 삶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22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과 같은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도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 만물은 오직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순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은 불교의 관점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고정불변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⑤ 노자에 따르면 절대적 도(道)의 관점에서는 미주(美醜), 선악(善惡), 귀천(貴賤) 등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하며, 세상에는 오직 상대적 가치만 있을 뿐이다.

22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중국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무위지치(無爲之治))을 통해 백성들이 자연적 덕성에 따라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위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이상 사회로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소국 과민을 제시하였다.

224 장자는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절대적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만물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연의 도에 따르는 이상적인 경지로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 제물(齊物)과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상태인 ㉡ 소요(逍遙)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겸허(謙虛)는 낮은 곳에 처한다는 의미이고, 부쟁(不爭)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둘은 노자가 물의 특성으로 제시한 개념이며, 노자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물이 도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225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만물이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 ④는 노자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장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본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226 장자는 이상적인 경지로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逍遙)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물아일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니는 소요의 경지는 가치의 상대성을 깨달을 때 이를 수 있다. ② 제물(齊物)의 경지는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바라보는 경지이다. ③ 장자는 인의(仁義)를 인위적인 기준으로 본다. ⑤ 장자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한다.

22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과 인위적 기준이나 외적 제약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니는 소요(逍遙)를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이상적인 경지로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삼도의 제거는 불교의 수양법에 해당한다. ㄷ은 맹자의 수양법에 대한 설명이다.

22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는 좌망(坐忘)과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심재(心齋)를 통해 허심(虛心)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식하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는 불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장자는 선악(善惡)의 명확한 구분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물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의 본별도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장자는 예(禮)와 같은 인위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⑤ 장자는 좌망을 통해 만물의 시비를 분별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229 장자는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만물이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깨우쳐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장자는 도덕규범과 같은 인위적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인 삶을 비판하며,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ㄹ, 장자는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 자아를 잊어버리는 경지에 들어가는[좌망(坐忘)]을 강조한다.

230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좌망(坐忘)],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심재(心齋)] 수양을 통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본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③ 장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④ 만물의 가치를 획일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⑤ 제도와 윤리 규범이 도에 따른 삶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본다.

23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절대적 평등의 경지를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좌망과 심재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장자는 도덕적 사회 구현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위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절대적 도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ㄷ,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시비, 선악, 귀천, 미추 등의 본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232 제시된 주장을 한 동양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인간과 동물 등 만물은 모두 자신의 자연적 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또한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자기중심적 관점과 인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양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장자는 도(道)를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ㄹ,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간에 귀천의 구분이 없다고 본다.

233 표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모든 본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 도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에는 장자가 긍정, ㉡에는 부정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장자는 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주장한다. 또한 ㄷ,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 기준과 가치에 얽매는 삶을 반대하며, ㄹ,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통해 편견에서 비롯된 모든 본별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장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에 따르는 삶을 반대한다. 따라서 장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34 (가)는 도가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두 사상은 모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각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모든 만물을 소중하게 대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도가와 불교는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지 않으며, 인간을 자연의 이용자나 정복자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본다. ③ 도가와 불교는 세속적 성공을 수양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도가는 수양을 통해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를 것을 추구하며, 불교는 수양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235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덕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삶을 강조하는 반면, 맹자는 타고난 선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확충해 가는 삶을 강조한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삶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장자는 인의예지의 덕을 인위적 기준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 자연의 덕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② 장자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 것을 강조한다. ③은 고자의 성무선악설에 해당한다. ⑤는 맹자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236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노자와 장자는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들로, 도가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이 지닌 상대적 가치를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의 편견에서 비롯된 시비, 선악, 미추 등의 본별은 모두 상대적이며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보고, 도를 깨달아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질서에 따르며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다. 도가에서는 불변하는 진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라고 본다. 르. 도가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237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예악(禮樂)을 숭상하고 도덕적 인격을 닦으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노자는 유교의 덕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연의 덕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④에 대해 공자는 긍정, 노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⑤는 공자가 부정, 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38 밑줄 친 '이 사상가들은 위진 시대의 현학자들이다. 현학자들은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으며, 현실에서 벗어나 은둔 생활을 추구하였다. 또한 세속적인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현학자들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있다.

바로알기 | ㄷ은 오두미교에 대한 설명이다. ㄹ은 후한 시대에 형성된 태평도, 오두미교와 같은 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보충

도교 사상의 전개	
황로학파	• 전한(前漢) 시대 •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고, 무위(無爲)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함 • 도가를 바탕으로 유가·묵가·법가 등의 사상을 수용함
태평도	• 후한(後漢) 시대 • 천하태평의 이상 사회를 현실에 실현하고자 함
오두미교	• 후한 시대 • 노자를 신격화하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음 → 복을 추구하고, 도덕적 선행을 권장함
현학	• 위진(魏晉) 시대 •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청담(淸談) 사상을 제시함 →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239 제시된 사상은 오두미교이다. 오두미교는 노자를 신격화하여 교조로 받들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으며 교단을 갖춘 종교로 성장하였다. 삼관수서를 행하며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고, 규정한 규율과 의식을 따르면 질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며, 신선술과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① 오두미교는 민간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불교, 도가, 신선 사상, 민간 신앙 등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240 ㉠은 오두미교, ㉡은 현학이다. 오두미교는 도가 사상을 계승하여 종교로 발전시켰고, 현학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다. 오두미교는 교단과 교리의 체계를 갖추고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면서, 교리를 믿고 규율을 따르면 반드시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의 호응을 얻었다. 현학자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은둔 생활을 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③ 현학자들은 어지러운 정치와 세속의 가치에 등을 돌리고, 현실에서 벗어난 은둔 생활을 중시하였다.

241 도교는 노장사상을 기반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사상과 결합하여 성립한 종교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숭상한 황로학파가 등장하였다. 한나라 말기에는 도가 사상이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교단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아 도덕적 선행을 권장한 오두미교가 대표적이다.

바로알기 | ㄴ. 태평도는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이후 교단이 몰락하였다. ㄹ. 현학자들은 세속적 문제와 거리를 두고 예술과 철학에 심취한 대화를 나누었다.

242 제시된 한국 사상은 한국 도교의 신선 사상과 양생법에 대한 것이다. 도교의 양생법은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허준의 『동의보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의학서이다. 또한, 한국 도가·도교 사상은 민간 신앙에 수용되면서 성황·칠성·조왕 등의 여러 신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풍수지리 사상을 수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의 측면을 보였다.

바로알기 | ㄷ. 한국의 도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학문으로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개념 보충

한국 도교 사상의 전개

• 시대별 흐름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 도교가 공식으로 수용됨
고려 시대	국가 차원에서 도가 사상을 중심으로 유교, 불교, 도가·도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남
조선 시대	양생법을 수용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권선징악을 지향하는 권선서가 널리 퍼짐

• 민간 신앙과 융합: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삼신(성황, 칠성, 조왕) 숭배, 풍수지리 사상 등에 영향을 줌

243 (가)는 황로학파, (나)는 현학이다. 황로학파에서는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고, 무위(無爲)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하였다. 현학은 세속적 가치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청담 사상을 제시하였다. 현학자들은 은둔의 삶을 중시하며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였고, 대표적인 현학자들로 죽림칠현이 있다.

바로알기 | ㄴ은 오두미교에 대한 설명이다.

9 한국 전통 윤리 사상의 근대적 지향성

개념 확인 문제

64쪽

244 (1) ○ (2) ×

245 (1) 동학 (2) 원불교

난이도별 필수 기출

65~67쪽

246 ④ 247 ② 248 ⑤ 249 ⑤ 250 ⑤ 251 ④
252 ① 253 ① 254 ② 255 ③ 256 ④ 257 ④

246 갑은 위정척사 사상, 을은 동도서기론(온건적 개화론)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우리 고유의 가치인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수용하자고 주장한다. 따라서 ④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⑤는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③은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47 (가)는 위정척사 사상, (나)는 동도서기론에 해당한다. (가)는 올바른 것(유교적 질서와 정신)은 지키고, 거저된 것(서양의 종교와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근대화된 서양의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개혁을 도모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족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바로알기 | 나. (가)는 전제 군주제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르. (나)는 서구 문물을 능동적·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248 갑은 동도서기론, 을은 위정척사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갑에 비해 을은 외세의 종교와 정신, 과학 기술과 문물 등을 모두 사악한 것으로 보고 배척하고자 하였으며, 당시의 사회적 질서 체계인 유교적 질서와 정신을 지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반외세적 경향의 정도'는 높고, 'Y: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정도'와 'Z: 서양의 군사·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 비교

위정척사 사상	• 올바른 것(유교적 가치와 질서)은 지키고, 사악한 것(서양의 종교와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 훗날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짐
개화사상	•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사회 개혁을 도모함 • 훗날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짐 • 급진적 개화론: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함 • 온건적 개화론(동도서기론):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고자 함

249 갑은 급진 개화파, 을은 온건 개화파(동도서기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급진 개화파는 전통적 정치 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하는 등 기존의 유교적 국가 질서를 전반적으로 쇄신하고자 하였다. 온건 개화파는 동양의 윤리와 도덕 등은 보존하면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은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바로알기 | ⑤ 선비 정신을 발현하여 항일 의병 운동을 주도한 것은 위정척사 사상이다.

250 동학은 민족적 위기 속에서 보국안민을 목표로 경천(敬天)사상의 바탕 위에 유불도 사상이 융합되며 성립하였다. 동학은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 등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 동학은 이후 원불교가 아니라 천도교로 확대·발전하였다.

251 제시된 사상은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이다. 동학은 봉건 체제가 붕괴하고 천주교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인본주의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고 보았으며, 이후 천도교로 발전하며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바로알기 | 르은 북학과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252 제시된 주장을 한 한국 사상가는 최제우이다. 동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다. 최제우는 하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친다. 르. 최제우는 서구적 가치에 반대하며,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해 평등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53 밑줄 친 '이 사상'은 원불교이다. 원불교는 근대 신흥 종교로 궁핍과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다. 원불교는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분리하지 않았다. 르. 원불교는 후천 개벽을 통해 현세에서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254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은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이다. 갑은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며,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제시하였다. 을은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나. 동도서기론은 온건 개화파의 주장이다. 르. 을은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255 (가)의 한국 사상가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 을은 온건 개화파 사상가이다. 갑은 서구 열강의 침략 상황에서 유교적 인륜과 의리 정신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을은 유교적 질서는 지키면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동양의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갑, 을의 공통 입장이므로 B에 해당한다. ②는 동학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개화사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⑤는 급진 개화론에 대한 설명이다.

256 갑은 위정척사 사상, 을은 동도서기론, 병은 동학의 입장을 취한다. 병은 나라의 수난과 민중의 고통 속에서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며, 신분 차별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또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통해 인간 존엄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르은 을(동도서기론)에 대한 설명이다.

257 갑은 반외세·봉건적 입장을 취하며 성리학적 질서의 유지를 주장하고, 천주교와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였다. 을은 봉건적 사회 질서는

유지하되, 외세의 발전된 문물은 수용하고자 하였다. 병은 반외세·반봉건적 입장에서 천주교의 유입에 반대하였고, 인본주의를 표방하며 신분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갑, 을은 성리학의 정신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B)을 지니며, 갑, 을, 병은 당시 천주교가 확산되는 시대 분위기에 반대하며 서양의 종교를 배척했다는 점에서 공통점(D)을 지닌다.

바로알기 | ㄱ, ㄴ은 병에게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03~09강)

68~73쪽

258 ①	259 ③	260 ③	261 ④	262 ①	263 ②
264 ⑤	265 ②	266 ①	267 ④	268 ④	269 ⑤
270 ④	271 ③	272 ④	273 ⑤	274 ②	275 ③
276 ⑤	277 ④	278 ④			

258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은 맹자이다. 맹자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良知)와 선천적인 도덕적 실천 능력인 양능(良能)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에 있어서는 군주가 도덕적 마음에 기초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의를 해치고 백성을 저버린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성은 향산(恒産)이 있어야 향심(恒心)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네 번째 입장: 목자의 겸애(兼愛)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259 (가)의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며,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 노력과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화성기위(化性起僞)]고 주장한다.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며, 타고난 선한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고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순자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④는 맹자에게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맹자는 본래 갖고 태어난 사단을 확충할 때 사덕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260 (가)의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모든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반면, 순자는 모든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맹자가 도덕의 근원을 하늘과 결부하여 파악했던 것과 달리, 순자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천인분이(天人分二)] 보았다.

바로알기 | ㄱ은 맹자와 순자의 공통된 입장으로 B에 들어가야 한다. ㄴ, 순자는 예(禮)를 통치의 표준으로 삼았다.

261 (가)의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수양을 통해 자신의 선한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두 질문에 대해 맹자는 둘 다 '아니요'라고 답할 것(D)이고, 순자는 둘 다 '예'라고 답할 것(A)이다.

262 표의 어느 사상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사물도 이치도 없다고 보며, 모든 이치는 마음속에 있다는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주장하였다. (가)에는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들어가야 하므로, '①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③, ⑤는 왕수인은 부정,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정약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63 (가)의 동양 사상이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良知)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맹자와 순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맹자는 타고난 도덕심을 확충하여 호연지기를 갖출 때 대인(大人)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④ 맹자는 수오지심이 마음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⑤ 순자는 예(禮)를 정치의 근원으로 삼고, 예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264 중국 사상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가 곧 성(性)이라고 보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며, 마음과 이치를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만물에는 이치가 품부되어 있다고 보고, 각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만물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며,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⑤는 주희가 긍정할 질문에 해당한다.

265 주희는 지와 행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지가 먼저이고 행이 나중이라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였다. 반면 왕수인은 지와 행은 본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며,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은 주희의 입장에 해당한다. ㄷ, 왕수인은 앎과 행동은 본래 하나라고 본다.

266 (가)의 갑은 목자, 을은 맹자, 병은 순자이다. 목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이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차별적 사랑[별애(別愛)]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겸애교리(兼愛交利)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② 맹자는 존비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인 인을 주장하므로 맹자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목자, 맹자, 순자 모두 신상필벌을 통한 부국강병의 추구를 주장하지 않는다. ④ 목자, 맹자, 순자 모두 도덕적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순자는 예를 통해 능력을 헤아려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므로, 맹자가 순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67 (가)의 갑은 왕수인, 을은 이황, 병은 이이에 해당한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보며,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자로서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도덕심은 인간 본성의 본체인 사덕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며, 하늘이 부여한 이치와 마음을 분리하여 본다. 다만, 이황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왕수인은 개별 사물의 이치 탐구를 주장하지 않으며, 양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② 이황은 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본다. ③ 이황은 마음의 본체가 성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⑤는 왕수인이 이황과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에 해당한다. 왕수인은 모든 이치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이황과 이이는 모든 만물에 이치가 품부되어 있다고 본다.

268 (가)의 갑은 순자, 을은 정약용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수양과 인위적 노력을 통해 덕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정약용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인 영지의 기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성리학자들과는 다르게 사덕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순자와 정약용의 공통점이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ㄴ. 순자는 인간 본성이 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며, 정약용은 인간 본성이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라고 본다.

269 한국 사상이 갑은 정약용, 중국 사상이 을은 주희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고 이러한 사덕이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는 성리학의 주장을 비판하며, 인간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또한 사덕은 사단을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정약용은 사단이 아니라 사덕이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므로, 주희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주희는 마음이 도덕적 행위를 주재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270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이다. 불교에서는 현재 나의 언행이 짓는 업(業)으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윤회하게 된다고 보고, 해탈을 통해 이러한 윤회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연기설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나 역시 고정 불변하지 않다고 본다. ㄴ. 불교에서는 업으로 인해 생이 다시 시작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1 (가)의 갑은 중관 사상, 을은 유식 사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관 사상을 구체화한 용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중관(中觀)을 중시하였다. 유식 사상에서는 모든 것을 공(空)이라고 보는 중관 사상이 극단적인 허무주의라고 비판하며, 인식하는 마음의 존재는 긍정한다. 이에 따라 유식 사상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唯識)을 강조하며,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ㄱ. 유식 사상에서는 마음의 존재는 긍정하므로 부정의 대답을 질문이다. 따라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ㄴ. 갑, 을은 모두 불교 사상이므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72 한국 사상이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지눌은 선은 부처의 마음 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고 하며 선종과 교종에서 주장하는 궁극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강조하였다.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며 교종의 수양 방법과 선종의 수양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내외겸전(內外兼全)과 교관겸수(教觀兼修)의 수행법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④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273 (가)의 중국 사상이 갑은 혜능, 한국 사상이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선종을 발전시킨 사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마음속의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눌은 돈오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한 후에도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를 제거해 가는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돈오점수를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은 혜능과 지눌 모두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ㄴ. 혜능은 교리와 경전 공부를 통해서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보고, 지눌은 경전 공부와 선(禪)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

274 (가)의 갑은 노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노자는 절대적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가모니는 모든 만물의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다고 보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노자와 석가모니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ㄴ. 하늘을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仁)로 보는 것은 유교이다.

275 갑은 순자, 을은 장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인위적인 규범인 예(禮)를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시키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자는 인간이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덕성을 지녔다고 보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선악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Y: 본성과 일치되는 삶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며, 'Z: 예의를 통한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276 ㉠은 유교, ㉡은 불교, ㉢은 도가이다. 유교는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으로 인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였고, 연기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비의 윤리를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다. 도가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은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27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로 보았다. 반면, 유불도 사상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유불도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로 간주하고 자연을 도구로 바라보는 베이컨의 주장에 대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하는 유기적 관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⑤은 베이컨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278 (가)의 갑은 동학, 을은 위정척사 사상, 병은 온건적 개화론(동도 서기론)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후천 개혁 사상을 제시하며 신분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이상 사회가 현세에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을은 서양의 종교, 정신, 문물 모두를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서양의 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0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개념 확인 문제

74쪽

279 (1) × (2) ×

280 (1) 소크라테스 (2) 지덕복 합일설

난이도별 필수 기출

75~79쪽

281 ③ 282 ④ 283 ② 284 ⑤ 285 ④ 286 ②
287 ④ 288 ③ 289 ③ 290 ③ 291 ⑤ 292 ④
293 ④ 294 ③ 295 ⑤ 296 해설 참조 297 ⑤
298 ④ 299 ② 300 ③ 301 ① 302 ④ 303 ①
304 ⑤ 305 해설 참조

281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소피스트의 윤리 상대주의와 소크라테스의 윤리 보편주의 사상 등이 있다.

바로알기 | ㄱ, ㄴ은 서양 윤리 사상의 또 다른 연원인 헤브라이즘에 대한 설명이다.

282 ㉠에 들어갈 용어는 헤브라이즘이다. 헤브라이즘은 신의 은총과 신앙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문화 및 전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헤브라이즘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인간 삶의 행위 원리를 탐구한다.

283 밑줄 친 '이 사상'은 헤브라이즘이다. 헤브라이즘은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신 중심의 윤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내세의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의 명령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유대민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엄격한 율법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

바로알기 | ㉡ 헤브라이즘은 고대 그리스 사상과 함께 서양 윤리의 두 연원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사상과는 다른 신앙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하였다.

284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한다. 헤브라이즘은 절대적 존재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신의 명령이 곧 윤리적 행동 지침임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 자연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285 소피스트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진리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웅변술과 변론술을 중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소피스트는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을 추구하였다. ② 소피스트는 웅변술과 변론술(수사술)을 중시하였다. ③ 소피스트는 부, 명예처럼 현실의 삶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였다. ⑤ 소피스트는 학문의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28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바로알기 | 프로타고라스는 ① 인간이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③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좋은 것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④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강조하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며, ⑤ 인간 삶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탐구가 자연에 대한 탐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287 가상 일기의 내용으로 볼 때, 일기가 쓰인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였다. 또한 학문적 관심과 탐구 대상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바로알기 | ①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해당한다. ⑤ 유일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은 중세 기독교 사상에 해당한다.

288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강조하며, 공동체마다 윤리 규범이 다르고 진리는 상대적임을 주장한다. 또한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이므로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만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소피스트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ㄴ.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강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개념 보충

대표적인 소피스트의 사상가들

프로타고라스	각 개인이 진리의 판단 기준 →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
고르기아스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진리를 부정 →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

289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법률이 강자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트라시마코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며 공동체의 법과 관습이 사회나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보고, 정의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보편타당한 도덕 판단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 판단의 기준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본다.

290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지각과 경험만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는 흄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291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고르기아스로, 두 사람은 모두 소피스트 사상가이다. 소피스트는 선악의 판단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물에 대한 지식과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다. 나아가 소피스트는 철학적 관심을 만물의 근원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⑤ 소피스트는 부와 명예 등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9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개인에 따라 옳음의 판단 기준은 달라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②는 프로타고라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③, ⑤는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들어가야 한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진리의 근거를 찾는 것은 플라톤이다.

29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는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지주의(主知主義)를 내세우며 참된 지식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만물의 근원을 탐구했던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③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지식이나 윤리가 존재한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진리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강조한 소피스트에 대한 평가이다. ⑤는 소피스트가 미친 영향에 해당한다.

294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으므로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일으킨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옳음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소크라테스는 선악의 구별이 이성적 지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④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이성이 도덕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가치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295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참된 앎을 얻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유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소피스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을 통해 행복은 지식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③은 플라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 해당한다.

296 **모범 답안** (1) 문답법(산파술)

(2) 참된 앎은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즉, 앎과 덕과 행복은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297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윤리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여 얻은 참된 앎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을 강조하며 지덕복 합일설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며 선을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판단이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③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98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무지를 발견함으로써 참된 앎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다. ②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을 강조하며 덕 있는 삶과 참된 앎은 하나라고 주장한다. ③은 트라시마코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본다.

299 가장 대화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행의 원인을 무지라고 보고, 무지의 자각을 통해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참된 앎을 얻고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근거하여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소크라테스는 현실적 유용성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소크라테스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유덕한 행위라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300 밑줄 친 ‘그’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타락시아는 에피쿠로스학파가 주장한 이상적 경지에 해당한다. ②는 아리스토텔레스, ④는 플라톤, ⑤는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30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행위를 통해 참된 앎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보고, 참된 앎이 곧 덕이며,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가 무지의 자각에서 비롯되며 윤리적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주지주의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ㄷ은 에피쿠로스학파가 강조한 아타락시아에 대한 설명이다. ㄹ,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편타당한 것이다.

302

• 개인의 감각 경험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봄

갑: 동일한 바람도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을: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타당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도덕적으로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반성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 용기 등과 같은 영혼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무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진리 탐구가 시작된다고 봄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개인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토대로 보편타당한 윤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현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소피스트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상가이다. ② 소피스트는 보편적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소크라테스는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⑤는 소피스트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303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보고,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윤리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프로타고라스는 개개인의 감각적 경험이 지식과 도덕의 판단 기준이므로 보편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리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소피스트에게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⑤는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은 플라톤이, ④는 에피쿠로스학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304 고대 서양 사상이 얹은 프로타고라스, 읊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온전하게 가꾸는 일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과업으로 보고, 영혼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 탐구한 자연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보충

소크라테스 윤리 사상의 특징

주지주의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규범이 존재하며,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봄 →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은 무지(無知)에 있다고 봄
지덕복합일설	영혼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지덕일치론] → 영혼의 덕을 갖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봄[덕복일치론] → 덕을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봄[지덕복합일설]
성찰의 강조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중시함
문답법(산파술)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문답법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치고자 함

305 **모범 답안** (1) 얹은 트라시마코스, 읊은 소크라테스이다.

(2) A: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다.

B: 자연이 아닌 인간에게 학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C: 이성이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다.

1 덕 있는 삶과 행복

개념 확인 문제

81쪽

306 이데아 307 (1) ○ (2) × (3) × 308 (1) 행복
(2) 덕(탁월성) (3) 중용 309 (1) - ㉠ (2) - ㉡

난이도별 필수 기출

82~91쪽

310 ④	311 ㉠ 지혜 ㉡ 용기 ㉢ 절제	312 ①	313 ②
314 ④	315 ⑤	316 ③	317 ⑤
318 ③	319 ⑤		
320 ⑤	321 ②	322 ③	323 ②
324 ①	325 ①		
326 ③	327 ②	328 ③	329 ①
330 ②	331 ②		
332 ①	333 ①	334 ①	335 ④
336 ③	337 ④		
338 ③	339 ②	340 ⑤	341 ④
342 ③	343 ⑤		
344 ④	345 ③	346 ①	347 ②
348 ④	349 ③		
350 ①	351 ②	352 ③	353 ②
354 ⑤	355 ②		

310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고, 이데아계만이 완전한 세계이며 이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데아란 존재의 참모습이며 개별 사물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본질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바로알기 | ④ 이데아는 현실을 떠나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311 **모범 답안** ㉠ 지혜 ㉡ 용기 ㉢ 절제

31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참된 앎(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데아 중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에 본질을 부여하며, 이와 같은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31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국가를 제시하였다. 이때 이상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며 각자가 타고난 재능과 교육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플라톤은 이상 국가의 모든 계층이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통치자와 방위자와 같은 지배 계층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알기 | ②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로운 계층 간 이동을 부정한다.

314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정의(正義)란 영혼의 각 부분이 그에 걸맞은 덕을 갖추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본다. 즉 이성은 지혜, 기개는 용기, 욕구는 절제의 덕을 갖추고, 이러한 덕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이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② 플라톤은 모든 욕구의 제어가 아니라 이성의 인도에 따라 욕망을 적절히 절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의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에 탁월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탁월성은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본다. 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315 밑줄 친 '이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이상 국가는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면 통치자가 반드시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치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절제의 덕이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316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의 인도에 따라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려, 욕구에는 절제, 기개에는 용기, 이성에는 지혜의 덕을 갖추는 때 영혼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절제는 국가를 이루는 세 계급, 즉 모든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플라톤은 존재의 본질이 현실의 사물이 아닌 이데아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세 번째 입장: 플라톤은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를 이상 사회라고 본다.

317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덕으로,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더 나은 쪽이 더 못한 쪽을 지배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플라톤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이 용기라고 본다. ③ 플라톤은 국가 전체의 좋음은 인식하는 것은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④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고, 영혼의 해방을 통해 온전히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혼의 해방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념 보충

플라톤의 4주덕	
지혜	영혼의 조화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덕
용기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
절제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들이 반목하지 않도록 하는 덕
정의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

318 ①은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 국가이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는 국가 구성원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 구분되며, 각 계급이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지혜의 덕을 지닌 철인이 통치한다. 이러한 이상 국가는 영혼의 조화를 이룬 정의로운 인간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탁월한 성향과 그에 따라 길러지는 덕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는다.

31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통치자 이외에도 방위자, 생산자 등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게 되면 정의로운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에 들어갈 진술은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각자 구분된 역할에 따라 통치자가 철학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소수의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 통치를 지향한다. ③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거나 현재의 통치자들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철학과 정치권력의 결합을 강조한다. ④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와 같은 지배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생산자의 사유 재산은 인정한다.

320 (가)는 플라톤이 제시한 동굴의 비유이다. 동굴의 비유에서 ①은 현상계, ㉠은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해 그림자를 참된 존재인 양 믿으며 사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 ㉡은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 ㉢은 철학자를 상징한다. ㉣은 완전한 실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데아를 의미한다.

321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이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④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며,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한 군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③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각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⑤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의 사적 소유를 반대한다.

32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계급들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를 갖추는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에서 통치자와 방위자 같은 지배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입장: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다. 두 번째 입장: 플라톤은 현실 세계가 참된 실재의 세계인 이데아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2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고, 제시된 비유는 동굴의 비유이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속은 현상계이고 동굴 바깥은 이데아계이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를 참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고, 동굴 밖의 사물들은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이다. 특히, 동굴 밖의 태양은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의미한다.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와 실제 사물과 태양을 본 사람은 철학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① 그림자는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사물들을 상징하고, ㉠ 태양은 사물들 각각의 본질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원인인 선의 이데아를 상징한다.

바로알기 | ㉡은 동굴 밖에 존재하는 사물, 즉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다. ㉢은 동굴의 비유 속에서 사슬을 풀고 동굴을 빠져 나간 죄수, 즉 철학자에 대한 설명이다.

324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며, 그림자의 세계인 현상계에서 벗어나 참된 실재의 세계인 이데아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ㄴ. 플라톤에게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이데아계이다. ㄷ. 플라톤은 모든 만물에는 이데아가 존재하지만, 이데아 중 가장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이데아가 가치의 측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325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하며, 이데아의 세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완전한 세계라고 본다.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에서 정의란 영혼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다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알기 | 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실천적 지혜에 대한 설명이다. ㉓는 플라톤이 강조한 지혜의 덕에 대한 설명이다. ㉒는 스토아학파가 주장한 이상적 경지인 아파테이아(부동심)에 대한 설명이다. ㉑ 플라톤은 시민들 사이에 부와 명예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326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프로타고라스, 병은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러한 진리와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리는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과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하고, 이성을 통해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한다. 또한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개, 욕구로 나누고 영혼의 각 부분이 탁월성을 발휘할 때 영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㉑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㉒ 프로타고라스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진리도 변한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㉒는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다.

327 대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인 중용의 덕을 따르는 삶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㉑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인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㉓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 해당한다. ㉒는 소피스트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에 해당한다. ㉑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328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입장과 달리,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례> 속 고등학생 A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A에게 취미 생활을 즐기려는 욕구를 극복하고 공부하려는 의지를 기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329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침과 모자람 가운데 가장 적절한 상태인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A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돕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A에게 얹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지력을 발휘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㉓는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㉒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중용은 감정의 제어가 아니라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의 적절한 감정을 의미한다. ㉑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습관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덕을 갖추 수 없음을 강조한다.

330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 덕행을 직접 실천해야 하며,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해야만 품성적 덕을 갖추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의 ㉑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을 알고 반복 실천해야 한다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㉑는 중세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㉓는 스피노자 등의 입장에 해당한다. ㉒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쾌락적 삶이 아닌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㉑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31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은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덕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아는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중용의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화를 통해 품성적 덕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정치적·사회적 존재이므로 공동체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332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적절함, 마땅함을 의미하는 중용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때 중용은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행위 원리이자 지나침과 모자람과 같은 양극단을 배제한 중간 상태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품성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알기 | ㄷ.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중간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태, 마땅한 상태를 의미한다. ㄴ. 중용은 그 자체로 악한 것(질투, 질도 등)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념 보충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한 마땅함이자 적절함
-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양극단의 중간 상태(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적절함)
-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존재하지 않음

33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로, ㉑에 들어갈 개념은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을 중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용은 도덕적 실천 의지를 습관화한 덕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의지가 약하면 행하지 못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㉑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가장 마땅하고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334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타고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중용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가 나약하다면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의지를 굳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선한 행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의 유용성이 아닌 행위의 옳음, 행위의 유덕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④는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려라는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이 아닌 중용에 따른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335 ㉠은 중용, ㉡은 품성적 덕이다. ㉠ 중용은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 즉 악덕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고 동일하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품성적 덕은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으로,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선행의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

바로알기 | ㉢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이 중용인지 아는 실천적 지혜, 즉 앎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덕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된 앎뿐만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336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인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보고,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한다. 지성적 덕은 진리를 가장 잘 인식하게 하는 성품으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품성적 덕은 행위의 양 극단 중 중간에 해당하는 중용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알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① 지성적 덕이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다고 보고, ②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진다고 본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⑤ 품성적 덕은 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지만, 무엇이 중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필수적이므로 품성적 덕 역시 이성을 토대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7

이성

- 진정한 행복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덕 있는 삶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선(善)이라고 부른다. 목적은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이 있다. 최고선은 곧 행복이다.

목적론적 세계관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인간만이 지니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고, 이성을 기반으로 덕을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성적 덕은 교육에 의해 형성되고, 품성적 덕은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 상황에 따라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알맞은 상태인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완전한 세계라고 주장한 플라톤에 비해 현실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바로알기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이를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338 제시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그가 주장하는 개념은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마땅함에 해당하는 중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고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옳은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형성되는 성품의 탁월성을 중용이라고 보고,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이성적 판단(실천적 지혜)에 따라 중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행위나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통해 인식하고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39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대화의 학생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340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용의 상태를 강조한다. 이때 중용은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행을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공동체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개념 보충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지성적 덕	-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 -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짐 - 예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품성적 덕	-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 -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됨 - 실천적 지혜의 영향을 받음 - 예 용기, 절제, 친절 등

341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현실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하고, 모든 사물의 원형이며 완전한 진리인 이데아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 좋음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342 그림의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라는 비유를 통해 유덕한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감정과 행위가 언제나 중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반복 실천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본질이나 근원을 탐구하는 것보다 현실에서의 올바른 삶을 탐구하고자 한다. ②는 스피노자 등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 해당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욕구의 제거가 아니라 중용에 따라 욕구를 적절하게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343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지식이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지만,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덕에 대한 지식이 무조건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앎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소크라테스는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본다. ②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진리는 보편적이라고 본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품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덕에 대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④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344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으로써 지식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옳은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의지의 부족함으로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좋은 행위에 대한 반복적 실천과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는 아리스토텔레스, ③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더욱 중시한다.

345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 덕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덕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유덕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의지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고, 'Y: 도덕적 앎이 올바른 행동을 보장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며, 'Z: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346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며, 진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플라톤은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가 진리이며, 진리는 현실이 아닌 이데아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지식이 절대적·보편적인 것이라 인식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진리가 현실에 있다고 보고, 플라톤은 이상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의 입장은 A, 을의 입장은 C에 해당한다.

347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탁월성을 발휘하면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인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덕을 갖춘 행복한 인간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플라톤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옳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고 강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이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연결된다고 본다. ③,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제대로 알아도 의지가 부족하면 덕에 맞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식만으로는 습관의 부족과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을 지향한다.

348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리고, 기개와 욕구가 이성을 잘 따를 때, 영혼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기개의 부분에 해당되는 덕은 용기이다. ② 정의는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가질 수 있는 덕이다. ③ 지혜의 덕은 통치자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는 세 계층으로 구분되어 기능한다.

349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고, 정치적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때 덕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네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가 부족하다면 즉각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다.

350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용이 무엇인지 알고,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행의 원인이 무지라고 보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도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④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강조할 주장이다. ③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윤리적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⑤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부정할 주장이다.

351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한 결과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 덕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므로, 소크라테스에게 지혜가 필연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악행의 원인을 무지(無知)로 파악하는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을 알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은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주장이므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352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고, 모든 덕이 참된 앎에서 비롯되며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지가 나약하면 행할 수 없다고 보고, 덕 있는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유덕한 사람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④는 소크라테스는 긍정,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는 소크라테스는 부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53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덕이 무엇인지 알면 무조건 덕을 행하게 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고 교육을 통해 갖추게 되는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은 중용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화해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지의 나약함 또한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54 (가)의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을 이성, 기개, 욕구로 구분하고 각 부분이 탁월성을 발휘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올바른 자체를 의미하는 올바름의 원형은 현실을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본다. 또한 옳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가 나약하다면 행할 수 없으므로 의지의 나약함이 악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덕에 대한 참된 앎을 강조하며, 이성을 통해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덕이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지는 것이라고 보고,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를 예로 제시한다. 이러한 실천적 지혜가 필수적 조건이 되는 것은 품성적 덕이다.

355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모든 사물의 원형이자 근본인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앎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현실의 인간 행위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플라톤은 참된 선이 이상적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존재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플라톤은 부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2 행복 추구의 방법

개념 확인 문제

92쪽

356 (1) 소극적 (2) 에피쿠로스학파

357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93~99쪽

358 ④	359 아타락시아	360 ④	361 ①	362 ②
363 ⑤	364 ①	365 ②	366 ⑤	367 ④
368 ①	369 ③	370 ⑤	371 해설 참조	372 ④
373 ①	374 ③	375 ②	376 ③	377 ⑤
378 ②	379 ③	380 ①	381 ①	382 ①
383 해설 참조	384 해설 참조	385 ②	386 ⑤	387 ③
388 ⑤	389 ④			

358 밑줄 친 '이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이다.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폴리스가 붕괴되고 대제국이 등장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따라서 더 나은 국가의 실현보다는 개인의 평온한 삶을 지향하는 개인적인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추구하는 사상적 특징이 나타났다.

바로알기 | ①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헬레니즘 시대에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평온한 삶을 중시하고, ③ 행복의 조건으로 개인의 내면적 평화를 중시하였다. ⑤는 플라톤의 입장에 해당한다.

359 **모범 답안** 아타락시아

360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최고선이며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또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 평정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에피쿠로스학파는 ①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②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③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하고, 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36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고, 행복을 위해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욕구를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공적인 관계보다는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소극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362 대화의 스승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순간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지속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을 추구한다. 또한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닌 고통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욕구를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라고 인식하면서, 바람직한 쾌락과 그렇지 못한 쾌락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의 원인 중 하나가 되므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쾌락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입장: 에피쿠로스는 지나친 육체적 쾌락이 오히려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육체적·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364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통해 허황된 욕심을 갖지 않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에피쿠로스는 ②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들을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고, ③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킨다고 본다. 또한 ④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지속적 쾌락을 추구해야 하며, 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개념 보충

에피쿠로스의 욕구 구분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음식, 수면 등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적인 욕구, 식도락에 대한 욕구 등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부,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욕구

365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죽음이 오면 인간은 모든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의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본다. 리.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366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순간적 쾌락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쾌락을 주지 못하므로 절제해야 하며,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소멸시키는 정신적·지속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욕구를 구분하여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부와 명예, 인기와 같은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오히려 고통을 유발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은둔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추구하면서 평정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367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선, 고통을 악이라고 인식하고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적극적 욕망의 충족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하며,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쾌락을 가져오는 적절한 정념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ㄴ.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이 고통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삶을 지향한다.

36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에피쿠로스는 ② 쾌락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인식하지만 바람직한 욕구와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③ 공적이고 명예로운 삶은 오히려 고통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며, ④ 세계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의 이합집산에 따른 실재라고 본다. 나아가 ⑤ 에피쿠로스는 신체의 고통이 없고 정신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를 지향한다.

369 에피쿠로스는 적극적 욕망의 충족에 따른 적극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소극적 쾌락을 통해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아타락시아(ataraxia)를 지향한다.

바로알기 | 에피쿠로스는 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②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④ 쾌락을 얻기 위해 고통을 제거하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한다. ⑤는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7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소극적 쾌락을 강조하며, 정의를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는 상태로 인식하였다. 또한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는 공동체 속에서의 공적인 삶이 아니라 은둔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371 **모범 답안** ㉠은 평정심(아타락시아)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개인적 측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하므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죽음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측면: 공적인 삶이나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와 같은 고통과 불안을 일으키므로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372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보편적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쾌락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참된 쾌락은 정신적·지속적 쾌락을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 소피스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보다 은둔하는 삶을 추구한다. ⑤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이 하나라고 본다.

373 제논, 세네카, 아우렐리우스로 대표되는 학파는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는 금욕을 추구하며 이성에 따른 삶을 통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스토아학파는 자연과 신을 동일시한다. ③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주장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자연적 정념은 인정한다. ④ 스토아학파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중시한다. ⑤ 스토아학파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374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욕주의를 지향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인 부동심을 이상적 상태로 추구하였고, 정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등의 정념은 인정하였다.

바로알기 | ③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닌 가치를 강조한다.

375 제시된 고대 서양 사상은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행복이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연이 이성 그 자체라고 본다. ③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모든 일은 우연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④ 스토아학파는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⑤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376 가상 대담의 고대 서양 사상가는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 마음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이에 따라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 신과 자연에 대한 이성적 삶을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에픽테토스는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본다. ②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이 같다고 본다. ④, ⑤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37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스토아학파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가족, 친구, 동료, 시민, 인류 전체를 사랑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인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②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③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④는 중세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378 제시된 고대 서양 사상은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금욕을 실천하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세계 시민주의와 만민 평등사상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쾌락과 같은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②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379 제시된 고대 서양 사상은 스토아학파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신과 세계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이성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시민이므로,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각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사상 등에 영향을 주었다. ② 스토아학파는 감각적 경험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였다. ④, ⑤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380 제시된 대화의 스승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이 신, 자연,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라고 보고, 인간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①에는 필연적 법칙이 세계를 주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는 칸트, ③은 공리주의자 벤담, ⑤는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지만, 자연적인 정념은 인정한다.

381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을 우주 만물의 본질로 파악하고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 속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절제를 통한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인 부동심을 통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지향한다. 나아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만민은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한다.

바로알기 | 네 번째 입장: 스토아학파는 최고의 선이란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다섯 번째 입장: 스토아학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이성에 일치하는 정념은 부정하지 않는다.

382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갑은 적극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적극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한다. 을은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금욕주의적 삶을 지향하며, 세상일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욕망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은 평온한 삶을 위해 아타락시아를, 을은 아파테이아를 추구한다.

바로알기 | ② 갑은 모든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고통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최소한만 충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③은 중세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갑, 을은 모두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지향한다.

383 **모범 답안** 에피쿠로스학파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소멸된 평정심(아타락시아)을 추구한 반면, 스토아학파는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의 상태인 부동심(아파테이아)을 추구한다.

384 **모범 답안** (1)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신이나 운명 및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

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은둔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

(2)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만민이 평등하다고 본다.

385 고대 서양 사상이자 얌은 에피쿠로스, 올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자이다. 얌은 정신적·지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올은 이성을 따라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순응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신에 의해 운명 지어져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아타락시아이다. ㄷ. 올은 우주 만물의 본질인 이성인 신, 자연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신은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다.

386 고대 사상이자 얌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자, 올은 에피쿠로스이다. 얌은 이성에 따르는 금욕적 삶을 추구하며 자연의 질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올은 쾌락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보다는 고통의 제거라는 소극적 방법을 강조한다. 얌은 욕망 충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올은 사회적 쾌락보다는 개인의 쾌락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여 사회적 쾌락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④는 얌은 긍정, 올은 부정할 주장이다. ②는 올이 긍정할 주장이다. ③은 얌은 부정, 올은 긍정할 주장이다.

387 고대 서양 사상이자 얌은 에피쿠로스, 올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자이다. 얌은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구분하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나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 올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 내면의 의지와 태도가 이성을 따라야 하며 자연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얌은 행복한 삶을 위해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얌은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은 공적인 삶 속에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388 고대 서양 사상이자 얌은 에피쿠로스, 올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자이다. 얌은 쾌락을 최고선이라고 인식하고 정신적·지속적 쾌락이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주장한다. 올은 이성을 최고선이라 인식하고 이성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얌, 올은 공통적으로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삶을 지향한다.

389 고대 서양 사상이자 얌은 에피쿠로스, 올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쾌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순응해야 하며, 자연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에피쿠로스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의 쾌락이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ㄷ은 에픽테토스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13 신앙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01쪽

390 ㉠ 그리스도교 ㉡ 황금률 **391** (1) 교부 (2) 천상의 나라
(3) 은총 **392** (1) × (2) ○ (3) × **393** (1) - ㉠ (2) -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2~107쪽

394 ⑤	395 ④	396 ④	397 ⑤	398 ④	399 ⑤
400 ②	401 ④	402 ④	403 ③	404 ③	405 ⑤
406 해설 참조		407 ④	408 ⑤	409 ⑤	410 ④
411 ⑤	412 ①	413 ①	414 ⑤	415 ①	416 ⑤
417 ③	418 ④	419 ④	420 ③	421 ②	

394 ㉠은 헤브라이즘이다.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현재에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세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는 삶을 지향한다.

바로알기 | ①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② 헤브라이즘은 신의 명령을 윤리의 근거로 삼는다. ③ 헤브라이즘은 신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④ 헤브라이즘은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395 제시된 글에서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학자와 레위인에 대비하여 비록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참되게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율법의 준수보다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396 제시된 주장과 관련된 사상은 예수의 그리스도교 사상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죄를 뉘우치고 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대교의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였다.

바로알기 | ④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토대가 되는 헤브라이즘에 대한 설명이다.

397 중세 교부 철학은 고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교부 철학은 신을 이테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라고 인식하고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 철학으로 신앙과 사랑의 윤리를 체계화하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인 사상이자이다.

바로알기 | ⑤는 스킨라 철학자인 아퀴나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398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로 나아감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아퀴나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인정하지만, 악은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399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외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을 강조하며, 모든 덕의 원천은 사랑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완전한 실재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자연적 악은 존재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400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참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안에서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① 신과의 인격적 만남은 신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③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④ 창조주로서 신은 피조물에게 완전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인간이 이를 남용하여 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⑤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401 제시된 내용과 관련 있는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행복은 덕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자연적 덕(지성적 덕, 품성적 덕)을 넘어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02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행복이 덕에 의해 실현될 수 있지만 자연적 덕에서 나아가 종교적 덕이 필요하며, 신의 은총에 의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을 구분하고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고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는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② 아퀴나스가 제시한 자연법의 제1의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위반한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⑤ 아퀴나스는 이성보다 신앙이 우선하지만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개념 보충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영원법	신의 의지로 창조되고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
자연법	•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영원법에 기초함 • 제1의 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실정법	•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법 → 자연법에 기초함 • 자연법을 위반한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함

403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퀴나스는 모든 진리가 신에게로 귀결된다고 본다. ㄴ. 아퀴나스는 이성에 의해 발견한 진리보다 신앙의 진리가 우선한다고 본다.

404

•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영원법을 일부 파악한 것임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 실정법은 자연법에서 도출된 것임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을 구분하고 자연법은 영원법에,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아퀴나스는 ① 실정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변할 수 있다고 보며, ② 실정법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제정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④ 영원법을 따름으로써 신의 뜻을 깨닫고 완전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⑤ 자연법은 오직 영원법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405 아퀴나스는 신앙이 이성에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궁극적인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첫 번째 관점: 아퀴나스는 종교적 덕을 통해 신에게로 다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행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내세에서 가능하다. 세 번째 관점: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을 기초로 만들어지며,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406 **모범 답안** (1) ㉠ 자연법 ㉡ 영원법 ㉢ 이성

(2)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407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인식된 자연적 성향을 실현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 종교적 덕을 실천하여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퀴나스는 신에 의해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를 의미하는 영원법을 이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아퀴나스는 은총과 계시 외에도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 번째 관점: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은 구분할 수 있으나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408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신을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인격신으로 인식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완전한 행복은 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과 같은 자연적 덕을 넘어 종교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나 이성과 신앙이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409 제시된 주장을 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으며, 신앙과 이성이 모두 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악을 신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②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아퀴나스는 신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실존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④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인식하지만, 신앙이 이성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본다.

410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의 덕을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보고, 도덕적 악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남용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진정한 행복을 위해 신의 은총과 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아퀴나스는 종교적 덕을 갖추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411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고, 참된 행복의 실현은 계시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이 현세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 덕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현실의 불완전한 행복을 넘어서 내세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의 불완전성에 의해 자연적 악이 생겨난다고 본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4주덕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하며,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한다고 본다. ④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이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이라고 본다.

개념 보충

아퀴나스의 덕의 구분

자연적 덕	지성의 덕, 품성의 덕 → 인간이 현세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함
종교적 덕	• 믿음, 소망, 사랑 → 인간을 신에게 안내함으로써 내세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함 • 궁극적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임

412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적 악이 선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 신과 하나 됨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ㄷ.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사랑을 최고 단계의 종교적 덕이라고 본다. ㄹ.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은 아퀴나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413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퀴나스, 고대 서양 사상이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자연적 덕(지성적 덕, 품성적 덕)을 강조하였으나,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이성에 의한 정신의 활동이라고 보고,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으로써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완전한 행복을 위해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414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며, 완전한 행복은 종교적 덕을 갖추으로써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만물과 선을 창조한 유일한 존재이지만,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415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사상을 수용하여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수용하여 종교적 덕을 통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비해 아퀴나스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하려는 정도'는 낮고, 'Y: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정도'는 높으며, 'Z: 신을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416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은 아퀴나스이다. 갑은 이성을 신과 우주와 인간의 공통된 본성으로 파악하고,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신의 섭리를 따름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신의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내세에 신과 하나 됨을 통해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 갑, 을은 모두 인간이 자연법을 제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갑은 자연법을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이라고 보고, 을은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영원법을 부분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본다.

417 (가)의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로 보고, 신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며,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신앙이 언제나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ㄹ.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이 내세에서 신의 은총을 통해 주어진다고 본다.

41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루터이다. 루터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비판하며,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칼뱅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루터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터는 진리를 성서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루터는 인류의 최종적인 과제가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⑤ 루터는 이성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419 을은 칼뱅이다. 칼뱅은 구원이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며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직업에서의 성공이

구원의 징표가 된다고 주장하며, 직업 노동이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④ 칼뱅은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신에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420 갑은 루터, 을은 칼뱅이다. 루터는 진리를 전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서에 있으며, 신앙인이자면 누구나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고 직업적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루터와 칼뱅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 중심의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칼뱅은 직업에서의 성공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는 있으나 구원의 확정은 아니므로, 직업적 성공으로 신의 예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념 보충

루터와 칼뱅의 사상	
루터	- 종교 개혁의 배경: 루터가 면죄부 판매와 같은 교회의 부패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촉발됨 - 입장: 참된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고 주장함 → 교회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함
칼뱅	- 예정설: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며,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봄 -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으로,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봄

421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루터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를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로 구분하고, 신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본다. 또한,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본다. 루터는 구원이 신의 은총과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계시와 은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③ 루터는 참된 진리가 교회가 아닌 성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④는 스토아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14 도덕의 기초

개념 확인 문제

109쪽

- 422 (1) L (2) ㄱ 423 (1) 방법적 회의 (2) 정념 (3) 인과 법칙
424 (1) 극장의 (2) 종족의 425 (1) × (2) ○ (3)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10~119쪽

- 426 ⑤ 427 해설 참조 428 해설 참조 429 ②
430 해설 참조 431 ⑤ 432 ② 433 ⑤ 434 ④
435 ⑤ 436 ① 437 ③ 438 ⑤ 439 ③ 440 ②
441 ④ 442 ③ 443 ① 444 ③ 445 ① 446 ③
447 해설 참조 448 ⑤ 449 ④ 450 ③ 451 ③
452 ① 453 ② 454 공감 455 ⑤ 456 ① 457 ④
458 ② 459 해설 참조 460 ④ 461 ⑤
462 해설 참조 463 ⑤ 464 ② 465 해설 참조
466 해설 참조 467 ② 468 ③ 469 ⑤
470 ㉠ 아파테이아(무동심) ㉡ 아타락시아(평정심) 471 ②

426 근대 서양에서는 진리 탐구를 위해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였다. 귀납법은 개별적 사실을 토대로 일반적 원리를, 연역법은 일반적 원리에서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귀납법은 실험과 관찰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지만, 찾아낸 지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연역법은 논증과 추론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지만, 지식의 범위를 넓혀 주지는 못한다. 귀납법을 활용한 대표적 사상가는 베이컨, 흄 등을 들 수 있고, 연역법을 활용한 대표적 사상가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을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귀납법은 경험론의 주요 방법론이고, 연역법은 합리론의 주요 방법론이다.

427 **모범 답안** ㉠ 일반적 원리로부터 이성적 추론을 통해 개별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 ㉡ 개별 사실로부터 경험을 통해 일반적 원리로 나아가는 방법

428 **모범 답안** 근대의 대표적인 인식론 두 가지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다. 합리론은 이성을 근원으로 보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며, 경험론은 경험을 근원으로 보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429 밑줄 친 근대 서양 사상이 '나는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비판하며,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심해야 한다는 방법적 회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데카르트가 찾은 철학의 제1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430 **모범 답안** (1) 방법적 회의

(2)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431 스피노자는 신은 창조자가 아닌 자연 그 자체라고 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피노자가 볼 때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인과 관계를 인식하여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본다. ② 스피노자는 우주 만물의 궁극적 원인을 이성이라고 본다. ③ 스피노자는 자연을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보고, 자연의 개별 사물은 하나의 실체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라고 인식한다. ④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

432 스피노자는 세계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에 우연성이나 자유 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으므로 인간이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스피노자는 자연이 필연적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정념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르.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면 세계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3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할 때 정념의 예측에서 벗어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나)의 A는 불안과 미움, 분노의 감정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입장에서는 A에게 이성을 통해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③ 스피노자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라고 보는 범신론적인 시각을 취한다.

434 그림의 강연자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인식하고, 신을 유일한 실체라고 파악한다. 또한,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스피노자는 모든 것의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로 파악한다. ② 스피노자는 모든 욕망의 제거가 아닌 욕망의 제어를 강조한다. ③, ⑤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세계의 필연적 질서를 이성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435 제시된 퍼즐의 가로 낱말 (A)는 '자성', (B)는 '우연'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자연'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이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며 자연의 개별 사물은 하나의 실체가 보여 주는 양태일 뿐이라고 본다. 즉,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자연은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자 개별 사물의 근원이다.

436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과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하면, 마음의 평화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을 창조한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며,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도 부정한다. 르. 스피노자는 수동적 감정인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능동적 감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437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고 자연과 사물들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질서를 인식할 때 정념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정념의 예측에서 벗어날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본다. ② 스피노자는 행복을 위해 이성의 인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④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⑤는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38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피노자는 세상이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그 자체라고 본다. ③ 스피노자는 결정론적 세계 속에서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④ 스피노자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43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신과 신의 속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활동을 이해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나)의 ①에는 자연 만물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적으로 통찰하라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신을 창조주가 아닌 자연 그 자체이자 유일한 실체로 이해한다. ② 스피노자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을 의미하는 수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⑤는 중세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스피노자의 정념

- 의미: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으로, 수동적 정서임
-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됨
-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여 세계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함

44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성으로써 인식하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인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평온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스피노자는 이성을 토대로 진리를 추구한다. ③ 스피노자는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④ 스피노자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을 주장하지 않는다. ⑤ 스피노자는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441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에픽테토스,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은 스피노자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이므로 바꿀 수 없으며, 인간은 이성으로써 이러한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라야 한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세계는 필연

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 관조를 통해 세계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고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욕망과 정념에 예속되지 말고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에픽테토스와 스피노자는 신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에픽테토스는 공적인 관계와 사회적 삶을 강조한다. ③ 에픽테토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인간의 삶에 주어진 필연성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⑤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442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데카르트, 을은 스피노자이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한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출발할 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을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하며, 참된 행복은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철학의 제1원리로 삼는다. 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모두 인간이 이성만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443 중세 서양 사상이 갑은 아퀴나스,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종교적 덕을 실천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받아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아퀴나스는 신이 신앙을 통해 만나야 하는 존재지만, 이성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스피노자는 이성에 일치하는 감정은 긍정한다. ④ 스피노자는 지적인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⑤는 아퀴나스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444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서양 사상이 병은 스피노자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도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는 이성의 인도에 따르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감정이 이성의 인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어된다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앎이 필요하다고 본다. ㄷ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에 해당한다.

445 제시된 주장을 한 갑은 베이컨이고, ㉠에 들어갈 탐구 방법은 귀납법이다.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개별 사례를 고찰하고 자연의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는 귀납법을 사용하여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46 ㉠은 시장의 우상, ㉡은 극장의 우상, ㉢은 종족의 우상에 해당한다. ㉠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편견이고, ㉡ 극장의 우상은 권위 있는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 종족의 우상은 인간성 그 자체, 즉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편견이다.

447 **모범 답안** ㉠ 종족의 우상 ㉡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편견을 말하고, 극장의 우상은 전통, 학설 등에 대한 무비판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편견을 말한다.

448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 전통, 학설 등에 대한 무비판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편견에 해당하므로 의사라는 권위에 기대 무비판적으로 의사를 믿고 있는 ㉤가 가장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은 시장의 우상, ㉡, ㉢은 종족의 우상, ㉣은 동굴의 우상의 사례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베이컨의 우상론

종족의 우상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동굴의 우상	개인의 특수한 경험, 교육 등에서 비롯된 편견
시장의 우상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류에서 비롯된 편견
극장의 우상	전통, 학설 등에 대한 무비판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편견

449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이라고 보고, 지식은 올바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자연 과학적 지식은 참된 지식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자연은 부분적으로 해체 가능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은 스피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50 베이컨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선입견을 우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제거해야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하려는 선입견이고, 시장의 우상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선입견이며,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학설 등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선입견이다.

바로알기 | ㉢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나 교육에 의한 선입견이다. 사물이나 동식물들을 의인화하여 해석하려는 선입견은 종족의 우상이다.

451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참된 지식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연역적 방법이 아닌 귀납적 방법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선입견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은 베이컨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이컨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유용성을 주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본다. ㄷ은 베이컨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이컨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신뢰한다.

452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인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고, 참된 지식의 근원은 이성보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은 경험이나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ㄷ.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453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토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역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컨은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귀납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자연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 데카르트는 귀납적 추론이 아니라 연역적 추론을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454 **모범 답안** 공감

455 흄은 선악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고, 도덕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흄은 올바른 도덕 판단이 감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② 흄은 감정이 행위의 선악을 구분하는 근거라고 본다. ③ 흄은 선악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④ 흄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실천을 위한 방법을 탐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456 근대 서양 사상이 감은 흄이다. 흄은 이성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상황>의 A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돈 가방을 줌에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따라서 흄의 입장에서 A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457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본다. 이렇듯 흄은 도덕 판단이 사회적인 시인이나 비난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르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458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성이 판단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며, 이때의 감정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라고 본다. 또한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성은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흄은 이성이 도덕적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③ 흄은 정념이 사실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고 본다. ④ 흄에 따르면 인과 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은 알 수 없다. ⑤ 흄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59 **모범 답안** 도덕적 행위는 감정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460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이성이 선악을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흄은 도덕성이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본다. 나아가 흄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흄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서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461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성이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에 대해 부인의 감정을 갖는 공감 능력이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흄은 선악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본다. ② 흄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흄은 도덕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는 공감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④ 흄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공감이라는 사회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옳다고 여긴다.

462 **모범 답안** (1) 라이언 레작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궁리하여 우물을 파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과 우물을 파 주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돈을 모으기 위해 집안일을 돕고 모금 운동을 벌여야겠다고 판단한 것 등의 과정에서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2) 라이언 레작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라이언 레작이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463 표의 근대 서양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고 보고,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즉 도덕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며,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도덕적 가치가 어떤 행위에서 느껴지는 쾌·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흄은 도덕적 가치를 감정의 문제로 본다. ② 흄은 감정이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흄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④ 흄은 도덕 행위에서 이성이 직접적 동기는 될 수 없으나 도덕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464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 사회적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공동체', (B)는 '소속감'이다. 따라서 세로 낱말 (A)는 '공감'이다. 흄의 입장에서 공감은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연적인 성향이다.

바로알기 | ① 흄은 공감을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인식한다. ③ 흄은 공감이 시인과 부인을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감정이라고 본다. ④ 흄은 공감이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본다. ⑤ 흄은 공감을 사회적 감정 혹은 동정심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행위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465 **모범 답안** 감은 데카르트이고, 밑줄 친 내용은 방법적 회의를 가리킨다.

466 **모범 답안** 을은 흄이다. 흄이 생각하는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역할은 담당할 수 있다.

467 근대 서양 사상이 감은 스피노자, 을은 흄이다. 스피노자는 만물이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라고 보고, 이성의 인도에 따라 만물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흄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감각적 지각일 뿐 자아 그 자체는 알 수

없다는 회의론을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주관적 감정을 넘어 공감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이성적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 스피노자에게 자유인은 필연적 인과 질서 속에서 이를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존재이다.

468 근대 서양 사상이 감은 흄, 을은 스피노자이다.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공감을 통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공감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이 선이라고 본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세계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선이라고 본다. 한편 흄은 인과 법칙이 심리적 성향과 습관일 뿐이라고 보고, 스피노자는 인과 법칙이 세계의 필연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흄과 스피노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은 흄은 부정, 스피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69 고대 서양 사상이 감은 소크라테스,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은 흄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덕성의 기초라고 보고, 이성을 통해 파악한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한다고 본다. 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고,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고 오직 감정만이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는 소크라테스는 부정, 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70 **모범 답안** ㉠ 아파테이아(부동심) ㉡ 아타락시아(평정심)

471 (가)의 감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 을은 에피쿠로스, 병은 흄이다. 감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이에 따름으로써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을은 적극적인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소멸된 평정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병은 선악이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도덕적 행위의 토대라고 본다. ㄴ. 을은 사적인 삶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적인 삶을 강조하는 갑에게 평온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ㄷ. 병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갑에게 감정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감은 이성에 일치하는 정념을 인정하므로 감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ㄷ. 을은 쾌락이 고통의 부재라는 소극적 쾌락을 주장하므로,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을은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 쾌락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을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5 옳고 그름의 기준

개념 확인 문제

121쪽

472 (1) 정언 명령 (2) 의무론 (3) 선의지 (4) 실천 이성

473 조건부 의무 **474** (1) × (2) ○ (3) ○ **475** (1) 밀 (2) 규칙

난이도별 필수 기출

122~131쪽

476 ②	477 ②	478 정언 명령	479 선의지
480 ④	481 ③	482 ③	483 ③
484 ②	485 ④	486 해설 참조	487 ③
488 ①	489 ④	490 해설 참조	491 ①
492 ③	493 ⑤	494 ②	495 ②
496 ①	497 ③	498 ③	499 ③
500 ⑤	501 해설 참조	502 ④	503 ①
504 해설 참조	505 ⑤	506 ⑤	507 해설 참조
508 ⑤	509 ④	510 ②	511 ①
512 ①	513 해설 참조	514 ④	515 ②
516 ④	517 ⑤	518 ①	519 ④
520 해설 참조	521 해설 참조		

47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이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나 동정심 같은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477 칸트는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이며,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나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칸트는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도덕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④, ⑤ 칸트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며,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78 **모범 답안** 정언 명령

479 **모범 답안** 선의지

480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위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를 자식의 의무로 여기고 부모를 공경한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동정심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②, ③, ⑤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481 근대 서양 사상이 감은 칸트이다. 칸트는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주장한다. <문제 상황>의 A는 옳지 못한 행동을 모른 척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 A에게 흄치는 행위는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482 갑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례> 속 A의 행동이 도덕적인 이유는 쓰러진 사람을 목적 자체로 대우했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으면, 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I ③ 칸트는 사회적 승인이나 동정심 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본다.

483 근대 서양 사상이 얹은 칸트이고, <문제 상황>의 A는 용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야 할지, 소년 가장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A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 원칙에 따라 기부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484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인 선의지에 따르는 행동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선의지를 지닌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일체의 감정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복은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절대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I ①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라면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③ 칸트는 감정에 따르는 행위는 의무에 맞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④는 스피노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칸트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485 칸트는 인간이 가진 선의지를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하여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자율적인 의지라고 보고,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I ①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②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보다 도덕적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③ 칸트는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본다. ⑤ 칸트는 도덕 법칙이나 도덕 원리를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다.

486 **모범 답안** (1) 정언 명령

(2)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48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행복의 추구는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이 도덕의 목적은 될 수는 없으며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에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칸트는 도덕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고, 실천 이성의 명령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을 희생시켜 이성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I ㄱ. 칸트는 동정심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본다. ㄷ.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본다.

488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선의지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칸트는 그 자체로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I ② 칸트에게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③ 칸트에게 선의지는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하여 의무를 따르려는 의지이다. ④ 칸트는 개인의 준칙이 보편화될 수 없다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⑤ 칸트는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존재는 이성을 지닌 인간뿐이라고 본다.

48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단지 의무에 적합한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구분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단지 의무에 적합한 행위는 의무를 지키려는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수립하는 자율적 도덕 법칙을 강조하며,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인격적 존재는 도덕의 주체인 동시에 목적인 인간뿐이며, 도덕적 행위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I ④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에 따르려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490 **모범 답안** (1) 칸트

(2) 칸트의 정언 명령에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따라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것과 인격주의의 원칙에 따라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라는 것이 있다.

491 제시된 글의 '나'는 현대 칸트주의 사상가인 로스이고, '어떤 사상가'는 칸트이다. 로스는 의무끼리 상충하는 경우에는 직관에 의해 더 우선되는 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무론을 주장하는 반면, 칸트는 의무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의무를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로스의 입장에서는 칸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을 간파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I ② 로스와 칸트 모두 도덕적 행위는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로스와 칸트 모두 인간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보편타당한 법칙이 있음을 인정한다. ④ 로스는 하나의 의무 이행이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

개념 보충

로스의 조건부 의무

- 배경: 정언 명령의 엄격성과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로스가 조건부 의무를 제시함
- 특징: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절대적으로 보이는 의무도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음

492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로스이다. 로스는 어떤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지만, 의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관과 상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는 실제적 의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직관에 의해 유보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지키지 못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I ① 로스는 조건부 의무가 어떤 의무와 충돌하느냐에 따라 실제적 의무 여부가 결정되므로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② 로스는 조건부 의무가 직관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의무라고 본다. ④ 로스는 조건부 의무가 다른 조건부 의무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로스는 의무들이 상충할 때 실제적 의무는 직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493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로스이다. 로스는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직관과 상식에 따라 더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되고, 다른 의무는 조건부 의무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스는 도덕 원칙이 인간의 직관과 상식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로스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②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은 절대적 의무만을 강조하여 의무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칸트의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삶의 구체적 행위에서 적절한 규칙을 제공하고자 한다. ③ 로스는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 의지를 긍정한다. ④ 로스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조건부 의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94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로스이고, <사례> 속 A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타인을 돕는 일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로스는 의무들끼리 충돌하면 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A에게 상식과 직관에 따라 더 중요한 의무를 선택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495 갑은 칸트, 을은 로스이다. 칸트는 오직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의무 의식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로스는 모든 의무는 조건부 의무로서 기능하며 의무끼리 충돌할 때는 직관과 상식에 따라 더 강력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무가 상충할 때 직관에 따라 더 우선되는 의무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칸트는 부정, 로스는 긍정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와 로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에게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다. ③은 칸트와 로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⑤는 로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스는 의무들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의무의 개념을 주장하며,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더 우선적인 의무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

496 갑은 칸트, 을은 흄이다. <문제 상황>의 A는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칸트는 A에게 의무 의식에 따라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고, 흄은 A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행위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③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흄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⑤는 흄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497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칸트, 을은 흄이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이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실천 이성에서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흄은 이성인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공감하는 사회적 감정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에 비해 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도덕의 원천으로서 감정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고, 'Y: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며, 'Z: 도덕 판단에서 행위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498 (가)의 갑은 로스, 을은 칸트이다. 로스와 칸트는 모두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보다 도덕적 의무가 우선한다고 본다. 그러나 로스는 어떤 의무는 조건부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칸트는 모든 의무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로스는 C, 칸트는 A에 해당된다.

499 (가)의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타인의 불행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이러한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의무를 따르려는 의무 의식만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흄과 칸트 모두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② 흄은 진리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칸트는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④ 칸트는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⑤ 칸트는 사회적 용인의 여부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500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벤담이다. <문제 상황>의 A는 가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원 잔디에 물을 주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벤담의 입장에서는 A에게 주민들 모두에게 최대 이익이 주어지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중세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밀의 입장에 해당한다.

501 **모범 답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50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토대로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벤담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⑤는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벤담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개념 보충

벤담의 쾌락 계산법의 기준

강도	얼마나 강한가?
지속성	얼마나 오래가는가?
확실성	얼마나 확실한가?
근접성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는가?
다산성	얼마나 다른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순수성	얼마나 고통이나 부작용이 없이 순수한가?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503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고 본다. 밀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며,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 감정 등을 활용한 정신적 쾌락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에는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밀은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므로 금욕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③ 밀은 실천 이성이 아니라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④ 밀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⑤는 칸트가 긍정할 입장이다.

504 **모범 답안**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이 밀이다. 밀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고 보고, 비교되는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쾌락을 분별해야 한다고 본다.

505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이 밀이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하는 고귀한 존재라고 보고, 수준 높은 쾌락은 도덕적 감정과 같이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활용해서 얻는 쾌락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쾌락의 질이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밀은 쾌락 전문가들 사이에서 쾌락의 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쾌락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06 제시된 글에서는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 공리주의는 최대의 공리만 산출한다면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허용한다는 것과 모든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최대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한다. ㄴ. 행위 공리주의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적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다.

507 **모범 답안**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0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유정적 존재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싱어는 종 차별주의를 지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싱어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9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감은 밀, 율은 벤담이다. 밀은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쾌락을 경험해 본 전문가가 쾌락의 질을 잘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④ 벤담은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편적 원리로 삼는다.

510 (가)는 규칙 공리주의, (나)는 행위 공리주의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고,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마다 적용한다. 이때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바로알기 | ①은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토대로 도덕성을 판단하므로 반드시 공리를 고려한다. ④는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칸트 등의 입장에 해당한다.

511 (가)는 행위 공리주의, (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규칙 공리주의는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과거 경험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규칙에 따르므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높다. 또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 기준으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①은 행위 공리주의가 아니라 규칙 공리주의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512 감은 벤담, 율은 밀이다. 벤담과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최고의 요인이라고 보고, 행위의 동기보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공리주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벤담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어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달리,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바로알기 | ㉔ 벤담과 밀은 모두 개인적 쾌락보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한다. ㉔ 벤담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513 **모범 답안** 의무론적 윤리 사상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를 중시하고,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 윤리 사상은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고 본다. 또한 옳고 그름은 결과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514 감은 칸트, 율은 벤담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벤담은 사회적 유용성을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칸트는 벤담에게 행위의 결과에 따라 도덕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선의지가 이성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② 칸트는 도덕의 목적이 도덕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③ 칸트는 도덕 법칙이 상황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본다. ⑤ 칸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515 (가)의 감은 벤담, 율은 칸트이다.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고, 모든 쾌락은 양적 계산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칸트는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선의지에 따라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벤담은 개인의 행복 증진만이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도 선이라고 본다. ㄴ. 칸트는 도덕 법칙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제시된다고 본다.

516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감은 칸트, 율은 벤담이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선의지를 의무로서 따르는 행동만이 선한 행동이라고 보고, 벤담은 사회 전체에 있어 쾌락의 양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칸트는 의무를 따르고자 할 때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쾌락의 양적 차이만을 인정한다. ⑤는 벤담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517 (가)의 감은 흄, 율은 벤담이다. 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을 통해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본다. 또한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이 양적 차이만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흄과 벤담은 모두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은 흠과 벤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18 근대 서양 사상이 얹은 칸트, 율은 밀이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선행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밀은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쾌락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도덕의 원리와 개인의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④는 밀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19 제시된 주장을 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며,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쾌락을 양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벤담의 입장에서는 칸트에게 행위의 유용성이 도덕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고, 밀에게는 쾌락에는 고급이나 저급의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인식하므로 쾌락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요인이 아님을 알고 있다. ②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는 본다. ③ 밀은 행위의 유용성이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⑤ 칸트는 이성이 도덕 성립의 근거임을 알고 있다.

520 **모범 답안** 얹은 밀, 율은 에피쿠로스, 병은 벤담이다.

521 **모범 답안** A: 쾌락을 평가할 때는 모든 쾌락을 경험해 본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B: 적극적으로 쾌락을 충족하기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C: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D: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이다.

16 현대의 윤리적 삶

개념 확인 문제

133쪽

522 (1) - ㉠ (2) - ㉡ (3) - ㉢ **523** (1) 현존재 (2) 한계 상황
(3) 사르트르 **524** (1) 실용주의 (2) 제임스 **525**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34~137쪽

526 ⑤ **527** ④ **528** ⑤ **529** ④ **530** ④ **531** ④
532 ⑤ **533** ⑤ **534** ④ **535** ⑤ **536** ⑤ **537** ⑤
538 ② **539** ② **540** ⑤ **541** ② **542** ③ **543** ②

52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로 구분하고, 종교적 실존 단계에 도달해서야 '신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고 본다.

개념 보충

키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

심미적 실존	•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 •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함
윤리적 실존	•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 윤리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 • 윤리 규범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며 절망함
종교적 실존	•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단계 •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함

527 ㉠은 심미적 실존의 단계로, 인간은 향락적인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하게 된다. ㉡은 윤리적 실존의 단계로, 인간은 규범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절망하게 된다. ㉢은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

528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세계와 나의 관계를 중시하며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를 해명하고자 한다. 또한 하이데거는 인간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바로알기 | ⑤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죽음 앞에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29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키르케고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단계에서 신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후퇴가 아닌 실존의 도약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에서 실존이 회복된다고 본다. ㄴ. 키르케고르는 각 단계로 가는 것이 주체적인 선택에 의거한 것이라고 본다.

530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한계 상황을 인식하여 참된 실존에 이르면 초월자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스퍼스는 죽음, 고통, 전쟁 등의 한계 상황은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ㄴ은 하이데거의 입장에 해당한다.

531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특정한 이유나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하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주체적 결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알기 | ㉔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과 같은 초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32 서양 사상이 얹은 키르케고르, 올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을 진리라고 인식하고, 인간은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사르트르는 진리의 보편성을 긍정하지 않는다. ② 사르트르는 신앙이 아닌 실존을 통해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③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객관적인 실존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에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33 서양 사상이 얹은 키르케고르, 올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라고 인식하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고,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한다. ②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④ 키르케고르는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534 현대 서양 사상이 얹은 사르트르, 올은 하이데거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실존에 앞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현존재의 본래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죽음을 회피하기보다 마주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결단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ㄴ. 하이데거는 이성이 추구하는 과학적 합리성으로는 현존재의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535 얹은 키르케고르, 올은 사르트르, 병은 아스퍼스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며,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스퍼스는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르러 초월자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②, ③은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아스퍼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아스퍼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3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진리란 확고부동하고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에 의해 실용성이 증명되고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제임스는 참된 진리가 확고부동하거나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ㄴ. 제임스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관념도 실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537 제임스는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며, 실용성이 증명된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보고, 전통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첫 번째 관점: 제임스는 지식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네 번째 관점: 제임스는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538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다. 듀이는 도덕적 진리는 언제든 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듀이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지식이란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바로알기 | ① 듀이는 가치 있는 지식이란 실생활에 유용성을 가져다주는 지식이라고 본다. ③ 듀이는 지식이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듀이는 실험과 관찰과 같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듀이는 진리가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53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듀이다. 듀이는 지식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덕적 진리는 삶의 개선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적 인간은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듀이는 지식이 항상 변화하며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ㄷ. 듀이는 도덕 문제에도 귀납적 탐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540 제시된 주장을 한 서양 사상은 듀이다. 듀이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보고,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듀이는 진리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② 듀이는 도덕적 진리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삶을 개선하고 진보시키기 위해 획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③ 듀이는 불변의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지식도 언제든 지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듀이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41 그림의 강연자는 듀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듀이는 도덕과 윤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본다. 또한 창조적 지성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대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듀이는 진리가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 듀이는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42 제시된 주장을 한 현대 서양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듀이가 볼 때 절대적 선이나 절대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알기 | ① 듀이는 도덕적 진리는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듀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본다. ⑤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543 (가)의 갑은 흄, 을은 듀이, 병은 벤담이다. 흄, 듀이, 벤담은 모두 사회적 유용성에 기여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동기가 아닌 결과에 따라 행위를 평가한다. 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끼는 공감을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듀이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용성을 낳는 지식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벤담은 양적功利주의를 주장하며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흄과 듀이는 모두 진리가 경험적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다. 듀이는 진리가 실생활의 유용성을 낳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10~16강)

138~143쪽

544 ③	545 ③	546 ④	547 ④	548 ⑤	549 ②
550 ②	551 ②	552 ⑤	553 ②	554 ⑤	555 ②
556 ③	557 ②	558 ②	559 ⑤	560 ⑤	561 ①
562 ②	563 ①				

544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프로타고라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영혼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가 개개인에게 상대적이라고 보고, 개인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도덕규범이 상대적이라면 굳이 자신의 도덕규범을 고집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따르는 편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자연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탐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프로타고라스는 진리가 개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고, ‘빨강다’라는 감각 경험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았다.

545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 경험이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라고 보고, 도덕규범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보편타당한 윤리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이성이 도덕규범의 우위를 가려 줄 보편타당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 지식과 도덕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다. 소크라테스는 선에 대한 기준을 이성이라고 보고,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546 (가)의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가 개개인의 감각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정의가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반면,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이상적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소피스트 사상가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해당한다. 다.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4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구분하고,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인간의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중용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습관화함으로써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의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부정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행위나 감정에는 중용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중용을 인식하고 습관화하면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548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고 사물의 완전한 원형인 이데아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현실에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일상생활에서 옳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플라톤은 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선의 이데아는 이데아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통해 욕구를 절제할 것을 강조하지만 욕구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549 (가)의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해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보고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된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의 실천을 위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나.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가 중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지성적 덕이라고 본다.

550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스피노자, 고대 서양 사상이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다. 갑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이러한 필연성을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을은 자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갑, 을은 모두 자연 법칙에 관한 얇이 정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ㄴ. 을은 자연 자체를 신으로 인식하는 범신론적 관점에서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51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다. 갑은 행위 선택의 참된 기준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이에 따름으로써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을은 모두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갑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ㄷ은 갑, 을의 공통적 입장이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552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임을 강조한다. 또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적 덕(지성적 덕, 품성적 덕)을 넘어 종교적 덕을 실현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사물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위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중시하지만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감정도 적절한 상태인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④는 아퀴나스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553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은 플라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다. 갑은 모든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는 이데아계에 존재하며 현실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데아라는 원형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며, 외부의 사건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동기와 의지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갑, 을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과 같이 자연적인 정념을 인정한다.

554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의 부족 때문에 악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용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품성적 덕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영원법을 파악한 것인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를 구분

하고, 신을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퀴나스에게 인간의 행복은 신의 은총과 관련이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퀴나스에게 신은 이성적 증명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현실에서도 이성을 통해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이성적 삶과 함께 의지가 중요하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퀴나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555 서양 사상이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이다.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친구와의 우정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모두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임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벤담은 사회적 쾌락과 개인적 쾌락의 조화를 추구한다. ㄷ.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고, 벤담은 개인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의 조화를 추구한다.

556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스피노자,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은 아퀴나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자 자연이며,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라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고,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두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고 본다.

557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은 스피노자,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은 아퀴나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을 통해서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 사상가는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술이다. ㄷ은 스피노자의 입장에 해당되는 진술이다.

558 (가)의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또한 벤담은 좋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칸트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이며,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옳은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 ㄴ. 칸트는 행위의 가치가 행위의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559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성장하고 진보하는 도덕적 가치가 최고선임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②는 듀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④는 듀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60 (가)의 값은 칸트, 을은 벤담, 병은 흄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흄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며,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벤담과 흄은 칸트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해야 함을 간파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보편타당성을 갖는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② 벤담은 개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쾌락의 조화를 추구한다. ③ 흄은 도덕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가 이성인 아닌 감정이라고 강조한다. ④ 칸트는 이성이 도덕적 실천의 동기라고 주장한다.

561 서양 사상이 값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실존의 단계와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거쳐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나아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죽음 앞에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는 ②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충실히 따르는 삶을 주장하지 않으며, ③ 철저한 금욕을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④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⑤ 직관과 체험보다 이성적 사유로 얻은 지식을 중시하지 않는다.

562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값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쾌락은 한 종류뿐이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육체적·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과 같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벤담과 밀 모두 행위의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인식하므로 B에 들어가는 한다. ㄷ. 벤담과 밀은 모두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563 서양 사상이 값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서 윤리적 실존의 단계,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거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참된 실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현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키르케고르는 이성을 통한 합리성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삶을 살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ㄹ은 키르케고르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17 이상사회~국가

개념 확인 문제

145쪽

564 (1) - ㉠ (2) - ㉡ (3) - ㉢

565 (1) ○ (2) ○

566 (1) 사회 계약론 (2) 공화주의

567 (1) ㄴ (2) ㄱ (3) ㄷ

난이도별 필수 기출

146~151쪽

568 ④	569 ③	570 해설 참조	571 ③	572 ⑤
573 ⑤	574 해설 참조	575 ②	576 ⑤	577 ②
578 ②	579 ④	580 ②	581 ②	582 ③
583 ①	584 ③	585 ④	586 ③	587 ③
588 ③	589 ④	590 ①	591 ④	592 ①
593 ③				

568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상 사회론에는 공자의 대동 사회,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등이 있다. 대동 사회는 인(仁)의 정신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로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이다. 소국 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하며, 무위의 삶을 실현하는 사회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공산 사회는 경제적 착취와 억압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이다.

바로알기 | ④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생산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56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영토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소국 과민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소국 과민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가며,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

바로알기 | ㄱ. 노자는 문명의 발전이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ㄷ. 노자는 천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속적 이로움의 추구에 반대한다.

570 **모범 답안** 대동 사회. 대동 사회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이며,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는 도덕 공동체이다.

571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수기안인(修己安人)]고 보며,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현세의 삶에 초점을 둔다. ② 공자는 인(仁)의 실현을 강조한다. ④ 공자는 사단(四端)의 확충을 제시하지 않는다. ⑤는 동학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57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효제(孝悌)라는 가족 윤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이자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공동체인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ㄱ은 도가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573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국가가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라고 보고, 부모를 섬기는 도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같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인과 예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공자는 지나친 경쟁과 사육의 추구에 반대한다. 세 번째 관점: 불교 사상에서 지지할 관점에 해당한다.

574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도덕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갑: 천하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사람들은 신의로 서로 화목하고, 나의 부모만 부모로 알지 않고 나의 자식만 자식으로 알지 않으며,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젊은이는 일할 자리를 얻고, 과부·고아·병자는 버림을 받는 일이 없고, 재물은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도둑이 없어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을: 작은 영토에 백성의 수는 적다. 군주는 힘이 없어도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되고,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순박해진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도록 한다.

모범 답안 (1) 갑은 공자이고, 을은 노자이다. 공자가 주장한 이상 사회는 대동 사회이고, 노자가 주장한 이상 사회는 소국 과민 사회이다.

(2) 대동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위하지 않고,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이다. 또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인의(仁義)의 덕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이다. 소국 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차별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사회이다. 또한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다.

575 (가)는 공자의 대동 사회, (나)는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에 해당한다. 대동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도덕 공동체이다. 소국 과민 사회는 도(道)에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 문명의 이기(利器)에 반대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또한 소국 과민 사회에서는 통치자가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대동 사회는 이로움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회이다.

57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역사적으로 생산자의 노동을 타인이 착취함으로써 사회에 계급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에 마르크스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가 완성되면 국가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577 서양 사상이 갑은 모어, 을은 마르크스이다. 모어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고,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회를 추구하였다. 마르크스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ㄴ은 플라톤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ㄹ은 베이컨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578 갑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통치자는 공공 정신이 투철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고, 공적 생활을 위해 사적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보았다. 모어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정치적 조직과 규율의 철학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모어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을 주장한다. ④ 모어는 자녀의 공동 양육을 주장하지 않는다. ⑤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을 세 계층으로 나누고, 생산 활동은 생산자 계층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579 (가)는 공자의 대동 사회, (나)는 모어의 유토피아에 해당한다. 대동 사회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모두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인륜이 구현된 사회이다.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대동 사회와 유토피아는 모두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질서 있는 도덕적 사회이다.

바로알기 | ㄴ. 대동 사회는 인(仁)과 예(禮)와 같은 인위적 사회 규범이 실현된 사회이다.

개념 보충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

공자의 대동 사회	• 성인(聖人)이 다스리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됨 •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 공동체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 • 인위적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됨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인(哲人)이 다스림 • 국가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모어의 유토피아	•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룸 •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

580 제시된 글은 효제(孝悌)의 가족 윤리가 인(仁)을 실현하는 근본이라고 보는 유교 사상에 해당한다. 유교에서는 가족 윤리와 가족 질서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은 마르크스, ③은 아리스토텔레스, ④는 사회 계약론, ⑤는 공화주의의 국가관에 해당한다.

581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군주가 덕을 함양하고, 인(仁)에 기초하여 백성을 위한 위민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천명사상을 근거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통치자는 형벌이 아닌 인의(仁義)의 덕을 통해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맹자는 통치자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는 민본(民本) 정치를 주장한다.

582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가정과 마을을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라고 본다. 또한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공동체이며, 개인의 자아 실현과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도덕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③은 사회 계약론의 국가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사회적·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동체라고 본다.

583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자연 발생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데 있다.

바로알기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덕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③은 흠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루소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로크의 입장에 해당한다.

584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서양 사상은 공화주의자인 키케로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국가가 공동선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려는 시민이 모인 정치 공동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유교, ②는 마르크스, ④는 사회 계약론, 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에 해당한다.

585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는 역할

정부가 유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부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본 동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통치 정부라는 기구를 통해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익이 현저한 정도로 중단될 때마다 복종의 책임도 반드시 중단된다.

← 국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에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있음

제시된 주장을 한 서양 사상은 로크이다.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과 같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로크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 복종의 의무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비롯되며, 국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복종 의무를 중단하고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④ 로크는 시민의 정치적 의무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다.

586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루소이다.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이다. ④는 로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루소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스스로가 주권자이자 입법자가 되며, 주권은 양도·분할할 수 없다고 본다. ⑤ 루소는 시민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시민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개념 보충

자연 상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

흠스	•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국가의 역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로크	• 자연 상태: 비교적 평화로우며 여성과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상태 • 국가의 역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장하는 것
루소	•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 국가의 역할: 사유 재산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

58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흠스이다. 흠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무제한적 자유를 추구하며, 자기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고 본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흠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흠스에 따르면 ①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도덕 기준과 도덕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②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④ 흠스는 계약을 맺은 시민들이 절대 군주에게 주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588 밑줄 친 '그'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지배 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마르크스는 국가가 ① 피지배 계급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보고, ② 계급 착취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또한 국가는 ④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의 원인이자 ⑤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본다.

58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이 생겨나면서 계급이 분화되었고, 이로 인해 계급 착취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또한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계급 갈등이 없어지고 국가가 소멸하게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첫 번째 관점: 마르크스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계급은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590 서양 사상이 얹은 로크, 읍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생명, 안전, 자유를 보장받고자 계약에 참여하여 만든 것이라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발생설의 입장에서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동의와 계약을 통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로크는 긍정,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로크는 인간이 지닌 자연권을 부분적으로 국가에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역할이 시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에 있다고 본다. ④는 로크는 부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로크는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복종의 책임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591 얹은 흠스, 읍은 로크이다. 흠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으며 국가가 생겨났다고 본다. 또한 흠스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다고 보고,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모두 양도하므로, 정치적 저항권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지만, 분쟁을 해결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본다. 이때 시민들은 국가에 일부의 주권만 양도한 것이므로,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흠스의 입장에 비해 로크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자연 상태를 불안과 혼란의 상태로 보는 정도'는 낮고, 'Y: 통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정도'는 높으며, 'Z: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592 갑은 플라톤, 을은 공자이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인간다움의 덕을 함양한 성인(聖人)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사상가는 모두 지도자가 도덕성을 갖추어야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는 모두 플라톤과 공자가 강조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593

갑: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로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고 개개인이 참다운 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의 역할: 시민들의 덕성 함양과 행복 실현
을: 국가는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서 미처 보장되지 못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연권 보장
병: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고 시민 개개인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공적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의 역할: 공동선의 실현과 시민적 덕성의 함양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 병은 공화주의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따라 가정과 마을을 거쳐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동체라고 본다. 로크는 국가가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맺은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공화주의자는 국가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시민이 만들어 낸 정치 공동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④는 로크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공화주의자 모두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18 시민~민주주의

개념 확인 문제

153쪽

594 (1) 자연권 (2) 소극적 자유 (3) 비지배로서의 자유 (4) 시민적 덕성

595 (1) ○ (2) ×

596 (1) - ㉠ (2) - ㉠ (3) - ㉠

597 ㉠ 시민 불복종 ㉡ 정의감

난이도별 필수 기출

154~159쪽

598 ④	599 ⑤	600 ②	601 ②	602 ③	603 ④
604 ①	605 ①	606 ⑤	607 ②	608 ②	609 ②
610 ②	611 ②	612 ②	613 ①	614 ⑤	615 ③
616 해설 참조	617 ⑤	618 ④	619 ④	620 ④	
621 ⑤	622 ①	623 ③			

598 제시된 글의 사회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며, 모든 인간은 천부 인권으로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하며,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라고 보며,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59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이사에 벌린이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자연권이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보고,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를 지향한다. 또한 집단의 권위보다는 개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벌린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본다.

600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키케로이다. 키케로는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시민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키케로는 ①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며, ③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④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의 자유를 강조하며, ⑤ 예측되지 않을 자유는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601 〈문제 상황〉 속 A는 이웃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아 보고 있다. 그 결과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 따라서 키케로의 입장에서는 A에게 무엇이 공동체에 좋을지 판단하여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602 제시된 글의 '나'는 공화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입장에 제기할 비판이 들어야 한다.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무와 공동선이 실현될 때 개인의 선도 증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해 공동선이 실현됨으로써 개인선도 증진됨을 경시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603 ㉠에 들어갈 사회사상은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에서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려면 시민의 참여로 만든 법에 따르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ㄴ. 공화주의에서는 소수의 권력 독점과 사익 추구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604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 가능하다고 본다. 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며, 개인이 지닌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하며, 공동선보다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바로알기 | ㉠은 자유주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605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해 개인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자유는 공적 일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을은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개인의 헌신을 강조하지 않는다. ㄷ. 을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606 (가)는 자유주의, (나)는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에 해당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민적 공화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두며,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주의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적 공동체의 역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할 것이다.

바로알기 | 자유주의 사상은 ① 가치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② 공동체보다 개인을 좋은 삶의 원천으로 본다. 또한 ③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④ 전통적 가치의 내면화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607 사회사상 (가)는 자유주의, (나)는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에 해당한다.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개인의 선을 합한 것이 공동선이라고 보고, 공동선보다는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반면, 시민적 공화주의는 도덕이 공동체적 가치와 맥락에 뿌리를 두며, 도덕적 행위자는 공동체의 일정한 유형의 문화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자유주의는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본다. 인간을 연고적 존재로 보는 것은 시민적 공화주의이다. ㄷ. 시민적 공화주의는 공동체적 유대를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608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관용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갑은 시민의 권리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치적·사회적 권리라고 본다. 반면, 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라고 보며, 국가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⑤는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④는 갑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609 갑은 자유주의, 을은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애국심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갑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애국심으로 규정한다. 반면, 을은 시민 사이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을 애국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ㄴ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설명이다.

610 제시된 글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애국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애국심이란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로서,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자발적 사랑이자, 자유와 정의가 확립된 조국을 대하는 인위적 열정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 ㄱ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해당한다. ㄷ은 자유주의적 애국심에 해당한다.

611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가 합쳐진 용어로,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또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과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바로알기 | ② 시민은 대표자를 선출한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통제할 수 있다.

612 제시된 사회사상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바로알기 | ①은 민족주의, ③은 자본주의, ④는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 원리가 아니다.

613 민주주의는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atos)를 어원으로 하는 사상으로, 근대에 등장한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아 근대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바로알기 | ㄴ. 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만 준수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의와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민회는 내국인 성인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다.

614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 공직자들, 전문가들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보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615 제시된 민주주의 유형은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대표의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바로알기 | ③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616 **모범 답안** 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다수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참여한 시민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617 제시된 글의 현대 민주주의 유형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론장 안에서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심의 주체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⑤ 심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시민들의 선호는 심의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618 밑줄 친 '이것'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서로 소통하며 집단의 의사를 형성해 가는 민주적 과정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유형이다. 심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심의 참가자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고, 공적 이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ㄷ. 심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다양한 시민들이 공적 심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개념 보충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	
대의 민주주의	•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 • 한계: 시민의 정치적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정치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참여 민주주의	• 다수의 시민이 공공 정책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 한계: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음
심의 민주주의	•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 한계: 모든 시민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심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619 (가)는 대의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정을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바로알기 | ① 심의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②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다수의 의사를 온전히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③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정치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620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 (다)는 대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공적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간접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유형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고안된 것이다.

바로알기 | ④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형태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621 (가)는 대의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로, 인민에 의한 지배보다 소수의 정치가에 의한 지배라는 성격이 강한 정치 유형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심의 과정을 중시하며, 시민들 간의 의견 공유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이 통치의 주체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③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보다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심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보다 시민 간의 소통과 토론, 유대 등을 강조한다.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높은 것은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이다.

62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부정직한 모든 법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감에 위배되는 심각한 정도의 부정직한 일부 법이나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 자체가 아니라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는 정부 정책의 개혁도 포함된다. ㄹ.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제1원칙이나 제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에 대한 저항인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때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623 서양 사상이 얇은 롤스, 을은 하버마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란 특정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이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요소로, 이를 통해 오류의 소지가 있는 법이나 정책을 교정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19 자본주의

개념 확인 문제

161쪽

- 624 (1) 사적 소유권 (2) 사유 재산 제도 625 (1) ○ (2) × (3) ○
 626 (1) - ㉔ (2) - ㉓ (3) - ㉑ 627 ㉑ 마르크스 사회주의
 ㉒ 민주 사회주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62~165쪽

- 628 ⑤ 629 ③ 630 ① 631 ① 632 ⑤ 633 ④
 634 ⑤ 635 ④ 636 ② 637 ④ 638 ⑤ 639 ①
 640 ⑤ 641 ① 642 ① 643 ① 644 ④ 645 ④

628 ㉑에 들어갈 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윤 추구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여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바로알기 | 자본주의는 ㄱ,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성립하였고, ㄴ, 물질적 평등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였다.

629 자본주의는 ① 근대 유럽에서 토지와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형성되었고, ② 칼뱅의 직업 소명설과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또한 ④ 봉건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였고, ⑤ 경제 활동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던 시장이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하였다.

바로알기 | ③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630 ㉑에 들어갈 사회사상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면서 정부 실패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631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최선의 경제 체제로 보았다.

바로알기 | ②, ③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나 사회 복지 제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④ 애덤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이 노동을 통한 생산에 있다고 보았다. ⑤ 애덤 스미스는 타인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63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적 소유권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ㄱ, 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며, 국가가 시장 경제 활동과 분배 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복지 제도나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

633 밑줄 친 '값'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케인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주장하므로 자유로운 이익 추구 활동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②, ⑤ 케인스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34 제시된 주장을 한 사회사상가는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률을 낮추고 민간 부분의 유효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 ② 케인스는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윤 추구보다 앞세우지 않았다. ③, ④ 케인스는 자연적 조화 기능만으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635 케인스는 정부의 공공 지출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가 경제 계획을 통해 공황과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등 제3의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은 고전적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636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자본주의의 관점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정책의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이 있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반대할 내용이다.

637 ㉑에는 시장 실패, ㉒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였다. 반면,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거대화와 무능,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의 문제가 나타났다.

638 (가) 사상은 고전적 자본주의, (나)는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한다. 고전적 자본주의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강조한 것과 달리, 수정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시장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전적 자본주의에 비해 수정 자본주의가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정도'와 'Y: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는 높고, 'Z: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장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㉔에 해당한다.

639 제시된 주장을 한 '나'는 신자유주의 사상가이고, '어떤 사상가'는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이다. 따라서 ㉑에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수정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복지의 확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분배의 형평성 강조, 시장 규제의 확대, 국가 주도의 유효 수요 창출에 반대한다.

개념 보충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고전적 자본주의	- 대표 사상가: 애덤 스미스 - 입장: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함 →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봄 -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고 봄
수정 자본주의	- 대표 사상가: 케인스 - 등장 배경: 자유방임적 시장 실패로 빈부 격차 심화, 빈곤과 실업의 대량 발생 - 입장: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신자유주의	- 대표 사상가: 하이에크 - 등장 배경: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 발생 - 입장: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봄 →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정책의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 추구

640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의 지속적인 착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 시장 경제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의 청산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인간 소외 현상이 해소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⑤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역사의 발전 단계가 종료된다고 본다.

641 제시된 사회사상은 민주 사회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급진적인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정당과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강조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결정을 정부나 중앙 기관이 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사적 소유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 공업 등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642 (가)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나)는 민주 사회주의 사상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 계급과 국가가 소멸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건설할 것을 주장하며,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민주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궁극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 르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643 갑은 마르크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 사상가이다. 갑은 국가를 지배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혁명을 통해 이상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계급 갈등이 사라지고, 국가가 소멸된다고 보았다. 을은 갑의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바로알기 | 나. 갑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르. 갑, 을은 절대적 평등 분배를 지향하지 않는다. 특히 갑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한다.

개념 보충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비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계급 없는 공산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주장함 -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통한 경제적 평등 실현을 강조함
민주 사회주의	- 급진적 폭력 혁명론을 비판함 -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주장함 -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함

644 병은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가 국가 이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체계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가.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다. 애덤 스미스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645 갑은 마르크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자이다. 갑과 을은 자본주의가 노동 기회나 소득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를 비판하였다. 이에 갑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이상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고, 을은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바로알기 | 가. 갑은 사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르은 을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C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념 확인 문제

167쪽

- 646 (1) 적극적 (2) 문화적 647 (1) 겸애교리 (2) 불교 (3) 유교
648 (1) × (2) ○ 649 (1) - ㉠ (2) - ㉡ (3) -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68~171쪽

- 650 ① 651 ③ 652 ③ 653 ③ 654 ③ 655 ②
656 ⑤ 657 ① 658 ① 659 ② 660 ④ 661 ④
662 ⑤ 663 ② 664 ④ 665 ③ 666 ③

650 갈등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간접적 폭력에는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 구조적 폭력과 종교나 예술 등으로 폭력을 합법화하거나 용인하는 ㉡ 문화적 폭력이 있다.

651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갈통이다. 갈통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간접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갈통은 평화가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갈통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다고 직접적 폭력이 저절로 제거되지는 않는다. ④ 갈통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⑤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간접적 폭력도 제거할 때 달성될 수 있다.

개념 보충

갈통의 폭력 구분

직접적 폭력	폭행, 구타, 고문, 테러, 전쟁 등 물리적이고 의도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사회 제도나 관습 등의 사회 구조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대의 폭력
문화적 폭력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

652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갈통이다. 갈통은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의 상태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문화적 차별과 편견의 극복을 위한 교육은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갈통에 따르면 전쟁의 종식과 같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② 갈통은 평화가 평화적 수단으로만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갈통은 진정한 평화가 국가 안보가 확장된 인간 안보를 통해 달성된다고 본다. ⑤ 갈통은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적극적 평화가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간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일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653 제시된 주장을 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묵자이다. 묵자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애(兼愛)를 주장하면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우며 나누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치적·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하여 전쟁에 반대하였다.

바로알기 | 네 번째 입장: 묵자는 준비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654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묵자이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로우며 나누는 때[겸애교리(兼愛交利)] 천하의 혼란을 막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진정한 이로우며 평화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겸애의 윤리를 실현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655 고대 동양 사상이 갑은 공자, 을은 묵자이다.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의(仁義)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묵자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며,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여기는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은 묵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ㄹ은 공자에게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656 갑은 불교 사상가, 을은 묵자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해 나와 남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묵자는 남의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차별 없이 사랑할 때 전쟁이 사라지고 천하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 을은 공통적으로 나와 남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만 천하가 평화로워진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는 순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은 유교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는 노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657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에라스무스이다. 에라스무스는 전쟁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본성상 선보다 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③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의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 해당한다. 에라스무스는 정당한 목적을 갖는 전쟁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65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제1의 확정 조항은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2의 확정 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확정 조항은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칸트는 분쟁 요소를 남겨둔 채 체결하는 평화 조약은 옳지 않으며, 평화를 위해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칸트에 따르면 국제법은 단일 국가인 세계 국가 체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659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각 국가들이 서로 도덕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떤 독립 국가도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은 국제 평화에 관한 현실주의의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ㄹ, 칸트는 단일한 세계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지 않으며, 각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국가 간 연방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념 보충

칸트의 영구 평화론	
영구 평화	전쟁의 일시적 중단 상태가 아니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보편적인 이성의 법이 실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
확정 조항	국가 간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확정 조항을 제시함 • 제1의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제2의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제3의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660 갑은 현실주의 입장의 사상가, 을은 이상주의 입장을 취하는 칸트이다. 갑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국제 연맹 체제의 수립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갑의 입장은 비윤리적 행위를 합리화할 위험이 있고, 을의 입장은 국제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알기 | 나. 칸트는 단일한 세계 정부의 수립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방 체제를 주장한다.

661

• 원조의 목적: 인류의 복지 향상(X),
질서 정연한 사회의 확립(O)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는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 구성원들이 동의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롤스는 ① 가난한 사회가 아니라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보고, ② 인류의 복지 향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표라고 본다. 또한 ③ 질서 정연한 사회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사회를 말한다. ⑤ 롤스는 원조가 자선이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662 제시된 주장을 한 '나'는 롤스이고, '어떤 서양 사상가'는 싱어이다. ㉠에는 롤스가 싱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향상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롤스는 싱어에게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빈곤해도 원조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절대 빈곤의 해소로 보지 않는다. ② 싱어는 개인에게도 원조의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싱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싱어는 해외 원조에 있어 공리의 원리를 따르므로 싱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싱어는 원조 주체의 커다란 희생이나 과도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663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원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인류 전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빈국의 극빈층 원조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하므로,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관점: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원조 주체의 커다란 희생이 없는 한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664 갑은 싱어, 을은 노직, 병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 주체의 큰 희생이 없는 한 타국의 빈민을 도와 인류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며, 이러한 원조는 의무라고 본다. 노직은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고 원조를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롤스는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원조는 의무라고 본다.

바로알기 | 라. 갑, 을, 병은 국가 간 불평등의 해소를 원조의 목표로 강조하지 않는다.

665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에 있어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 비해 싱어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개인에 대한 원조를 중시하는 정도'는 높고, 'Y: 국제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는 정도'는 낮으며, 'Z: 원조에 있어 국적을 따지지 않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665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싱어는 세계의 모든 빈곤한 사람들이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라. 롤스는 원조의 결과 모든 인류에게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라. 싱어는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주장하지만,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17~20강)

172~173쪽

667 ① 668 ② 669 ④ 670 ③ 671 ① 672 ④
673 ⑤ 674 ①

667 갑은 플라톤, 을은 마르크스이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계급과 국가가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으며 모두가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플라톤은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각 계층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④ 마르크스는 국가와 계급이 소멸된 상태를 이상적 사회로 보았다. ⑤ 플라톤은 소유에 있어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668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의 사상에 해당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상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공동체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화주의는 자유의 실현이 법에 의한 통치로 인해 가능하다고 보며, 비자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해 개인의 선도 증진이 되며, 자유의 보장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서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는 공화주의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669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전쟁 상태라고 보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본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조정할 공통의 재판관이 부재하여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어려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본다. 루소는 자연 상태가 소유권이 없어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고,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로크는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670 (가)의 갑은 롤스, 을은 하버마스이다. 롤스와 하버마스는 공통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야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공공의 정의관을 시민 불복종의 기준으로 삼는다. ㄴ. 롤스와 하버마스 모두 법과 정책의 개선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B에 들어가야 한다.

671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 병은 마르크스이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자유 경쟁 원리에 기반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야기하고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보아 사유 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 경쟁 원리에 기반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긍정, 마르크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④는 마르크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⑤는 케인스는 긍정, 하이에크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72 (가)는 민주 사회주의, (나)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민주주의적 수단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

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전적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의 자유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은 민주 사회주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673 (가)의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로,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 시장 경제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장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인스와 달리, 하이에크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치명적인 자만으로,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하이에크만이 긍정할 내용이므로 C에 들어가야 한다. ㄴ은 케인스와 하이에크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674 현대 서양 사상이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하여, 인류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싱어는 질서 정연한 국가의 절대 빈민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싱어는 인류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지만, 전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할 때까지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ㄴ은 싱어에게만 해당하는 입장이다.

Memo

Memo